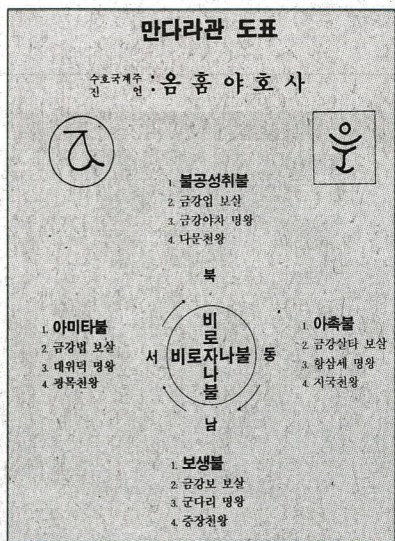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공 회향 국가발전, 호국 - '자녀 잘되기' 기원



▲만다라관 도표

진호국가불공은 밀교의 호국경전인『수호국계 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총기 4년인 지난 1975년 4월 22일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제정하고 그해 5월 5일부터 1주간 국가안보를 위해 정진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한 해 상·하반기 각각 49일간 실시되며, 상반기 49일 불공은 2월 19일에 입제하여 4월 8일 회향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은 호국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경전으로, 정법을 호포하고 좋은 정치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국위가 선양되어 백성들이 안락하고, 국권이 튼튼하여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 밀교 고승인 명랑법사와 해통국사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많은 승려들이 이 경을 호국불교경전으로 신봉해 왔다.

한편 종조법설집에는 “49일 불공 정진의 1차 목적은 국가발전과 호국에 있다. 이 정진은 부국강병으로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사이므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고, 만약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르게 되도록 회사하고 서원해야 한다.”

2차 목적은 개인적인 것으로, 조상을 위한 천도불공과 자녀 잘되기를 소원하는 서원불공이라 할 수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이 ‘자녀 잘되기’를 원하는 불공기간이고, 하반기 49일불공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의 해탈’을 서원하는 불공기간이다. 진호국가불공은 가끔적 저녁에 하는 것이 공덕이 크며 매일 정송하는 불공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불공은 반드시 북쪽으로 향하여 앉아 염송해야 한다”라고 설해져 있다.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역삼동 유치’ 협조 요청 지성 통리원장, 조계종 자승 스님과 회동



▲ 지성 통리원장이 3월 22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회담하고 있다.

지성 통리원장이 3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회동하고 서울 통리원 부지에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과 관련한 제반협조를 요청했다.

지성 통리원장은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은 컨벤션 시설과 공연장이 부족한 교계 현실

을 감안해 총지중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역삼동에 약 9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센터 건립 유치를 위한 여건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부지 마련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강남 요지에 공영장이 부족한 교계 현실

다”며 “종단협 이사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총지중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불교교도자대회의 종단협 차원 유치 문제도 논의했다. 이와함께 기존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교류대회를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지성 원장 BBS이사 선임
진흥원 추천 사장 선출 논의 4월 중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3월 1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7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지중 전임 통리원장 후임으로 지성 통리원장을 선임했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이와함께 2007년 11월 이후 공석인 사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브리핑을 통해 “4월 중 진흥원과 불교방송 이사자들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불교방송은 진흥원 추천 2명 사장 후보의 자격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간담회를 통해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사선임 및 6월 5일 임기만료 순준석 대현실업 대표이사 연임, 창원중계소 부지매입, 2009년 결산, 신입사장 선출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사감원, 통리원 등 과년도 결산감사 “종무행정 효율성- 합리성 제고”



▲ 3월 12일 열린 감사 평가회.

총지중 사감원은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통리원, 법장원, 유지재단, 종단 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기38년(2009년)도 정기 결산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기38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신속공사, 사원수리비의 지출과 용역 및 물자구매계약, 예산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인사처리 및 인재양성 계획, 승직자와 종무원의 복지실태 등 종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12일 열린 감사평가회에서 사감위원들은 “이번 감사는 종무행정 활성화, 교세확장 방안과 각 부서별 활동 평가 등을 중심으로 신임 집행부 구성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서를 비롯한 종무행정 관련된 제 서류를 비중있게 점검했다”며 “법령과 규정 등을 적시한 법규집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서류 결재시 부분적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성 통리원장은 “감사를 준비하고 검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관행적인 면이 없지 않는데 지적사항은 업무를 섬세하게 수행하겠다는 생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조법설

한조각 풀잎에도 우주정신(宇宙精神)이 들어 있어

개개의 인간은 고립적 존재가 아니고 모든 인간과의 관련을 가지고 존재하므로 이것을 밀교에서는 중중제망(重重帝網)이라고 한다. 또 인간과 자연계가 따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자연계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자연계는 인간에 의하여 실현(實現)된다.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종속하는 것이다. 한조각 풀잎에도 우주정신(宇宙精神)이 들어 있는 것이다. -법설집 1장 교상과 사상편

10면 / 특집 - 법정스님 입적(다비 / 행장)

11면 / 독일불교 순례기(랍텐 재단)

12면 / 사찰탐방(밀교호국사찰 사천왕사)

“웃음꽃이 연꽃돼요”



서원당에 웃음꽃이 필때마다 연꽃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서울 충지사 교도들이 사월초파일 연등을 만들고 있다.

상반기 49일 불공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닌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을 찾아 참회하고, 조상으로부터 쌓아 온 업장을 소멸하는 지극한 불공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여 해탈을 이루시고, 항상 마음자리를 살피 청정한 부처님이 되도록 수행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모든 마장을 예방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 일 시 : 총기 39년 2월 19일 ~ 4월 8일

◆ 대 상 : 충지중 교도 및 모든 불자

◆ 장 소 : 충지중 전 사원



불교충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만다라 세상 “그 아니 즐거운가”

조선시대의 청백리 이원익은 난세의 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노비와 평민들로 더불어 가난하게 살았다. 사람들은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를 가리켜 ‘키 작은 정승’이라고 불렀다. 그가 영의정으로 있을 당시 광해군이 대비를 몰아내려했다. 그러나 이원익은 이를 완강히 반대하다 여주로 귀향을 가게 됐다. 그는 여주향리의 집에 기식하면서 뜻자리 찌는 일로 나날을 보냈다. 솜씨는 능숙하지 못했으나 정성들여 짠 옷자리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루는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와 안쓰러워 물었다. “이 보게, 자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못자리 찌는 모습은 정말 못 봐 주겠네. 정 마음 불일데가 없으면 책을 읽거나 시를 쓰게. 무엇 때문에 이런 무의미한 일을 하면서 여생을 마치고 있는가?” 친구의 걱정엔 이원익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 사람아, 무의미한 일이라니. 나는 못자리 찌면서 세상을 공부하고 있네. 한 땀 한 땀을 짜고 있으면 온갖 잡념이 사라진다네. 또 여기에 앉을 사람들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 나 또한 기쁘다네. 게다가 내가 노력한 만큼 큰 결실이 있으니 이 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나?”

그 뒤 인조가 광해군을 축출하고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영의정으로 제수하였다. 이원익은 세 명의 임금에게 총애를 받으며 영의정을 다섯 번이나 지냈다. 그러면서도 항상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는 일화가 있다. 또 중국 청나라에는 김성탄 학자가 있었다. 이 분은 장마리로 열흘간 초옥에 갇혀 있으면서 서른 세가지 인생의 즐거움을 적었다.

저녁 먹은 후 할 일이 없어 무심코 옛 문갑을 뒤져 본다. 거기엔 옛날 그에게서 돈을 빌려간 수십장의 차용문서가 나온다. 채무자 가운데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문서 다발에 불을 붙여 타오르는 연기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본다. 그 어찌 아니 즐거울 수 있겠나.

10년간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 하나가 찾아왔다. 예와 다름 없이 빈털터리 친구다. 친구를 다락에 앉혀 놓고 아내에게 “소풍과의 아내처럼 뭘 좀 사줄수 없냐”하고 귀뜸을 한다. 이에 서슴없이 비녀를 팔아 친구를 대접하고 돈이 남으니 그 어찌 아니 즐거우랴.

가난한 서생이 지독함이 없어 찾아 왔다가 말을 못꺼내고 머뭇거린다. 이를 김새채고 뒤란에 데리고 가 “얼마가 필요한가”고 물어 비녀 판값을 떼어준다. 친구에게 “바쁘겠지만 차한잔 하고 가는게 어떻가”하고 붙잡으니 아아 그 아니 즐겁지 아니하랴. 너나 없이 남의 것을 빼앗는데서 낙을 삼지만 김성탄의 33낙(樂)은 이처럼 남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고 있다. 이는 참으로 인생의 경지를 넘어서 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옛 우리 할머니들은 남에게 무엇이란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습속이 있었다. 이를테면 놀고 있는 남의 집 아이를 불러 들여 해진 바지를 기워준다든지, 남의 집에 갔다가 흩어진 신발을 가지런히 해 놓고 온다든지, 떡다 남은 건전이를 바가지에 담아 다리 밑에 노숙하는 실패팔들에게 갖다주었다. 할머니들은 그토록 가난했으면서 주는 재미로 각박하지 않게 지냈다. 무언가 주는 것으로 낙을 삼았던 그네들 인생의 즐거움이 끈끈하게 묻어나오고 있었음이 엿보이지 않는다.

지성 통리원장 등 새 집행부, 대외 유대 강화

조계, 진각, 천태, 관음, 태고종 연이은 방문



▲ 3월 18일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의 회담 모습.



▲ 3월 8일 진각종 해정 통리원장과의 답소 모습.

지성 통리원장 등 새 집행부가 진각종, 천태종, 관음종, 태고종, 조계종 수장들을 만나 종단 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종단 이미지 제고, 상호 유대 강화를 꾀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성 통리원장과 인선 총무부장, 화령 교육원장 등은 3월 18일 우면동 천태종 관문사를 방문하고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종단 운영과 관련한 제 의견을 교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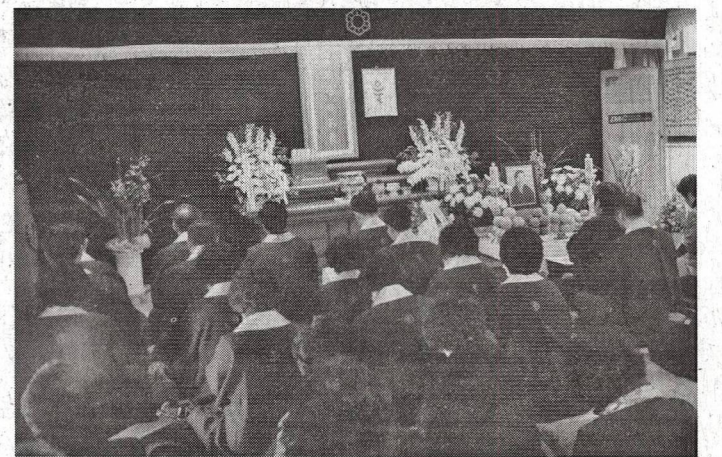
지성 통리원장이 서두에서 “천태종은 구인사를 중심으로 관문사, 성통사 등 지역 거점사찰 등의 신앙과 행정 이원화가 잘 돼 있다”고 말하자 정산 총무원장이 “총지종도 종단과 신도 조직이 탄탄하고 신심이 깊은 것 같다”며 화답하는 등 양 원장은 격식없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이와함께 종단 학교 운영을 비롯 군승 문제, 사찰 건립 문제 등도 언급했다.

이에 앞서 3월 8일에는 하월곡동 진각종 총인원을 방문하고 회담했다. 이 자리엔 진각종 총무부장 수성 정사와 재무부장 관천 정사, 포교부장 덕정 정사 등이 동석했다.

또 3월 22엔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찾아 총지종이 구상하고 있는 국제교류센터 건립과 국제 재가불교지도자대회의 종단협차원 유치 등과 관련한 협조를 구하는 등 대외 지지 기반 구축에도 나섰다.

한편 지성 통리원장은 태고종 주최 'G-20 성공 기원, 세계문화

유산 등재 기념 2010 영산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태고종은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2010 영산제를 3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사부대중 2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했다.



정법수(正法修) 대전수 1주기 법회

▲ 통영 단향사(주교: 경원 정사)는 3월 9일 오후 2시 정법수(正法修) 대전수 1주기 법회를 봉행했다.

故 정법수 대전수는 총기 24(1995)년 총지종 중앙교육원 이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1995년 부산 정각사, 2005년 대구 개천사에서 근무했으며, 2007년 밀인지 대전수를 품수 받았다.

◇ 16대 집행부에게 듣는다



인선 정사
(총무부장)

을 다하겠습니다.

통리원장님께서 임기 내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원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종무원에서부터 국장, 부장, 통리원장님까지 각자가 맡은 직무에 책임의식을 갖고 주어진 일의 경중과 선후를 잘 파악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단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한정된 지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평소 승단의 일원으로서 생각해 온 사견임을 전제로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원당, 특락전(명부전), 요사채(의탁할 곳이 없거나 남은 생을 부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교도들을 위한 시설)가 포함된 종합기도도당의 건립입니다.

둘째, 현재 7개월 정도인 시무 교육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엄격한 수행을 통한 사람이 승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승직 후보자 교육 강화입니다.

셋째, 종단 예산의 대부분을 보살님들의 단시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해 일정 부분 은 수익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나.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진력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종단과 교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종무행정을 총괄하시면서 여러 난제에도 직면하실텐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종단의 성쇠가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러므로 승직자와 교도의 화합 단결된 힘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판과 불신, 미움, 증오,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신뢰, 사랑, 자비의 마음을 갖고 종단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정진해 갑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사심없이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문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솔한 마음자세로 상대가 수긍할 때까지 대화로 풀어 가겠습니다.

알림

▶ 4월 5일~11일까지 월초불공이 봉행됩니다.
▶ 4월 8일은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입니다.
▶ 전국 각 사원에서 초파일 연등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죽비소리

바른 생각과 정진의 힘으로 열반을 얻는다

바른 생각과 정진의 힘을 갖추어서 아첨하거나 왜곡되고 게으른 생각을 버리고 생사를 깨쳐 알면 이것이 곧 열반이다. 능히 세간의 모든 상(相)을 여탈 것이다.

《부자합집경 父子合集經》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천사 이희권 2/24 10,000	단음사 천 공 2/1 4,000	백월사 이갑진 2/25 10,000	수인사 장영택 2/17 50,000	혜정사 최영례 2/16 10,000
관성사 박현숙 2/25 10,000	단음사 법연지 2/19 5,000	삼밀사 백진옥 2/25 10,000	수인사 김봉기 2/26 10,000	흥국사 지 정 2/26 20,000
관성사 황성녀 2/26 10,000	단음사 경병순 2/25 10,000	삼밀사 인법계 2/25 10,000	운천사 이성미 2/11 50,000	강순관 2/4 10,000
기로원 대 관 2/26 10,000	단음사 경순지 2/25 10,000	삼밀사 원 송 2/25 10,000	운천사 반아화 2/16 20,000	김종철 2/3 50,000
기로원 대자행 2/26 10,000	만보사 정덕순 2/25 10,000	삼밀사 최유경 2/25 10,000	자석사 이판도 2/2 20,000	류재환 2/10 10,000
기로원 밀공정 2/26 10,000	밀인사 정정희 2/1 5,000	선립사 심지장 2/24 10,000	정각사 구정희 2/16 20,000	안호정 2/26 20,000
기로원 법수원 2/26 10,000	밀인사 이재호 2/3 20,000	선립사 최미원 2/24 10,000	정각사 박수빈 2/19 10,000	이규성 2/5 4,000
기로원 법장화 2/26 10,000	밀인사 원 당 2/8 10,000	선립사 정복지 2/25 10,000	총지사 이수영 2/22 20,000	이숙남 2/15 30,000
기로원 법지원 2/26 10,000	밀인사 묘심해 2/8 10,000	시법사 진여행 2/19 10,000	총지사 최해선 2/22 20,000	이혜원 2/1 5,000
기로원 불멸심 2/26 10,000	밀인사 이재갑 2/17 20,000	실보사 이순옥 2/23 5,000	총지사 박말조 2/26 5,000	임동수 2/22 30,000
기로원 사홍화 2/26 10,000	벽룡사 양정현 2/22 10,000	실지사 송우섭 2/1 5,000	총지사 최순진 2/26 20,000	정인순 2/1 10,000
기로원 상지화 2/26 10,000	법천사 김경숙 2/8 5,000	실지사 정우석 2/8 10,000	총지사 홍연수 2/26 10,000	정희빈 2/1 10,000
기로원 수증원 2/26 10,000	법천사 시 정 2/26 10,000	실지사 이화수 2/19 20,000	화음사 하향숙 2/10 30,000	
기로원 총지화 2/26 10,000	법천사 원만원 2/26 10,000	성화사 우배려 2/16 50,000	혜정사 강보구 2/4 4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풍경소리

마음은 늙지 않는다



몸은 물질이라서 늙지만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에 늙지 않습니다. 다만 몸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늙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늙을 수 없는 마음을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이란 나이를 먹으면 노쇠해지고 활력이 떨어지지만 마음은 세월과 더불어 연륜이 쌓이고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묘원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조바심 내지 마라



한 생각이 지극하면 이루어지듯이, 어떤 일을 할 때 조바심내지 않고 열심히 하다보면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산의 저 잿나무도 한 알의 잿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기암절벽 위로 올라가 겨우내 먹으려고 바위 밑에 저장한 것이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태웅 스님 (해동선원장)

자신의 조건 안에서 행복을

사람들 '행복의 조건'에 대한 목록을 미리 만들어 둡니다. 하지만 행복은 내 마음 안에서 찾아야 하고, 내 조건 안에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음이,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음을 행복이라 여기면, 하루에도 수없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날마다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도영스님 | 원주 송광사 주지

이달의 명상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써 피어난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다른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스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스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저 자신을 지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김훈 '자연거 여행' 중에서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20p

꿈과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충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창 조
협 동
경 애
교 목 보리수

충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8-25, 전화 : 051-556-0281



만다리의 복지세상 18

현대사회, 근기 따라 다양한 포교 방법 필요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나 연령과 성, 피부색, 언어, 성장의 시대적 또는 세대적 배경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정한 집단은 분명히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또한 우리는 특정 집단이 지닌 공통분모를 기준으로 그 집단을 분류하거나 유형화한다. 더불어 그렇게 분류된 집단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연령별 계층과 성별 계층, 직업 계층, 경제적 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물론 이 같은 계층은 사회마다 다르기도 하

아직 갖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한국 불교는 주로 연령별 계층포교와 특수계층포교에 주력해 왔다. 물론 계층분화에 따른 계층포교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계층포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곳도 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해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이치는 부처님의 초전법륜과 이후 포교사의 전개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차별적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비록 모든 존재가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인연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연령별 계층포교
연령별 계층포교는 연령대에 따라 어린이포교, 청소년포교, 청년포교, 노인포교 등으로 크게 나뉘를 수 있다. 우선 어린이포교는 연령별 계층포교의 한 분야이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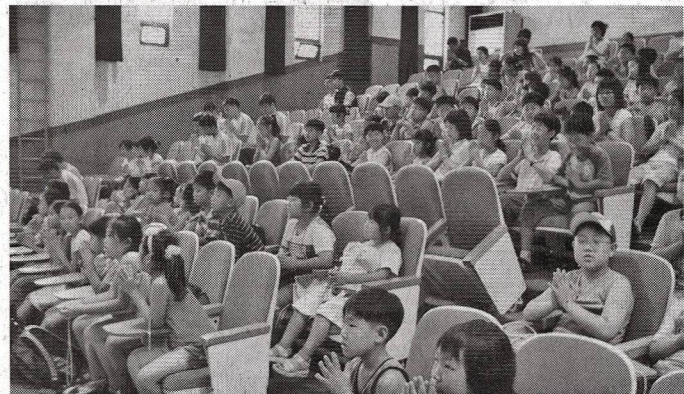
▲ 총지중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모습.

에게 친숙한 포교매체는 인터넷매체나 모바일매체라는 점, 그리고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청소년포교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다. 청년은 이미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서도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연령계층이다.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청년포교는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위해서나 사찰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포교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불교의 청년포교가 침체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사찰 안에서나 불교관에서 다양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들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자신은 물론 청장년층까지도 노후생활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

노후생활은 특히나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노병과 같은 불가항력의 현상과 관련된다. 점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연령계층상의 특성으로 인해 노인들의 주된 관심거리는 건강문제, 여기문제, 노후문제 등에 집중된다. 특히 불교는 이같은 자원들이 가장 풍부한 종교로 노인포교에 매우 유리하다.

종교인구의 연령대 분포를 분석해 보면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노인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노인포교를 등한시해 왔다. 그 틀을 타서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노인포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다음호 계속)

-지정 정사(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



▲ 총지중 자성동일들.

지만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고 각 계층간에는 근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계층별 포교활동이 필요하다. 예컨대 어린이 포교와 노인 포교를 보자. 어린이 포교와 노인 포교의 경우,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도 완전히 다르다. 활동영역이 다르므로 포교방법 또한 달라야 한다.

현대사회는 지속적으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포교활동도 더욱 다 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포교주체는 물론 포교방법은 점차 개별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다. 이처럼 포교대상과 포교주체, 포교영역 및 장소, 포교방법이 개별화되고 전문화돼 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포교활동은 사회계층에 따른 포교활동이란 형식적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개별적이고 전문화된 포교활동을 총칭해 '계층포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불교는 다양하고 개별적이며 전문화돼 가는 계층포교를 모두 실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역량도

계층포교는 불교의 전통적 포교방법인 근기별 포교방법이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표현된 것이다. 사람의 근기란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의 산물임으로 그 근기에 따라 층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계층'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계층포교의 필요성은 부처님의 포교방법에서부터 도출된

부처님 대기설법, 계층포교의 전형
청소년, 노년 계층 포교 시급

다. 부처님의 대기설법이야말로 사람의 근기별 차이를 고려한 포교방법, 즉 현대적 의미의 계층별 포교방법의 가장 전형적인 예다.

초전법륜을 시작하기 전,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근기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는 법(法)을 누구에게 처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셨다. 그리고 가장 상근기의 사람을 차례차례 선택해 나갔는데 이러한 전법전략이 바로 계층포교 전략이다.

전법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교를 부촉하시면서 "두 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포교대상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포교방법을 활용하라는 당부라고 볼 수 있다.

모의 슬하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켜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스스로 가치관을 잘 정립해 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포교는 청소년 자신을 위해서나 불교발전을 위해서나 매우 중요한 불사다.

▶ 나이에 따라 포교방법 달라 /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청소년포교 지도자들은 청소년의 보편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기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른바 임시지옥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 청소년들

총지동의보감

여성의 평생건강, 자궁이 결정한다



조선휘 원장
(여성 美 한의원)

90년대 중반 한국을 강타한 IMF는 가정 및 직장, 생활을 포함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신통속도를 만들어냈다. 그 대표적인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나이를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이 현저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그와 비례해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여성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다. 통증의 원인은 총맥과 임맥의 기혈순환이 균형을 잃어서 발생한 것으로, 자궁 내 기질적 문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면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 및 찜질 등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20대 후반 및 30-40대 여성

본격적인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으로 인해서 이 시기의 여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증상들은 자궁근증, 자궁내막증, 불임, 산후풍, 임신중독증 등이 있다.

근본적으로 자궁 및 골반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어혈과 노폐물의 배출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다. 특히 자궁근증, 불임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 경우 수술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거나 망설여질 때, 검사상 특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여성에게 한방치료가 권장되기도 한다.

직장 스트레스와 출산 등으로 발병률 높아져
규칙적 식습관, 운동으로 증상 완화

도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여성질환의 상당부분은 자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는 연령별로 자주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질환을 알아보도록 하자.

10-20대 초·중반 여성

이 시기의 여성들은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고 난소와 자궁을 포함한 생식기의 발육활동이 활발하다. 또한 진정된 여성임을 나타내주는 생리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자궁질환은 생리통이다.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친 여성이라면 13-15세를 전후해서 누구나 매달 3-7일 정도 생리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차가 있지만 대개는 하복부 및 허리의 통증을 동반한 생리통을

50-60대 여성

이 시기의 여성은 이미 출산과 임신의 과정을 지나고 여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폐경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 증상들은 갱년기 장애와 요실금이다.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겪는 두드러진 신체변화는 생리가 끊어지고 난소의 기능이 쇠퇴하고 방광 및 골반 주위의 근육들이 약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누구나 겪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히려 이 시기의 여성은 반 강제적으로 요구된 엄마, 아내, 며느리, 딸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제보 총지정보에서는 전국 각사원의 소식과 행사, 기타 미담과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보전화 : 02)552-1080-2 / bota32@hanmail.net

여성 美 조선휘 원장

여성 美 (부인)의 조선휘 원장

여성 美 한의원 다양한 치료법으로 여성의 건강을

임상 20년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경단(子經丹)

종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불임 자궁어혈 제거

생혈액분석기

자동혈장진단기

초음파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제(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약약 요법(경단, 요실금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KBS

조선휘 원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속아TV “전문의 상담”

한남대교

신사역3번출구

신한은행빌딩

신사역1번출구

도산대로

30M

20M

1분거리

STARBUCKS

대성대한의원

생혈액분석기

자동혈장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자궁목기

지상설법

음식 베푸는 공덕, 과보 받음 가장 빨라



법공

(기로서승)

육바라밀(六波羅蜜) 중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은 보시의 공덕을 믿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는 것으로 그치기 쉽습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얇은 한낱 공염불(空念佛)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중생들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큰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다생겁을 통해 탐업(貪業)을 쌓아 간탐심이 굳어져 내 것이라 집착하는 착념(着念)이 업력(業力)으로 작용합니다. 이 업력의 작용은 개체간의 다소 차이만 있을 뿐 중생으로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이 혼잡(薰習)된 업력에 의해 살아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렵고도 쉬운 보시바라밀은 어떻게 해야 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중생병의 근원이 되는 삼업(三業: 身·口·意)은 탐업이 머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탐심을 끊고 보시행을 실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조님께서는 이러한 중생의 병폐를 간파하시고 세간중에서 생활하며 수행하기에 적합토록 그 근거(根機: 교법을 듣고 닦아 얻는 능력)에 맞게 제반 실천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충지종의 삼종재시(三鐘財施)

불교에서 말하는 삼종재시(三鐘財施)란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위시(無畏施)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삼종재시란 우리 충지종에서 행하고 있는 종단 특유의 재시법(財施法)입니다. 입교하여 가장 우선적으

로 하는 한 술 한 술 열 손잡이 모이면 한 그릇 밥이 된다는 뜻'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에게 있어 밥 한 술은 비록 적은 양이지만 열이 모이면 많은 양이 되어 큰 것을 이룬다는 교훈과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절량희사법은 주부(主婦)가 매 끼니 조석

부지하는 가장 귀중한 물자로서 꼭 있어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생동안 끼니 걱정없이 사는 이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굶주림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가 많으며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생명이 수없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연간 기아(飢餓) 선상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수억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과법(因果法)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아고(飢餓苦)를 면치 못함은 다 과거 전세로부터 음식을 천대했거나 남용(濫用)한 과보일 것인바 평소 식량을 소중히 하고 내 몫으로 주어진 식량을 절약하여 널리 유정들에게 베풀게 되면 그 복덕과보(福德果報)가 클 것입니다.

경(經)에서도 다른 보시보다 식시(食施) 공덕이 현세에도 과보 받음이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음식 인심 후한 사람이 식욕이 풍부하고 복 받고 사는 것이 역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절량희사, 쌀 한 술씩 덜어 모아 공양미로 종단 특유의 재시법(財施法)

로 주는 법(授法)이 바로 육자진언(六字真言) 염송법과 삼종재시 회시법(喜事法)입니다.

① 절량희사(節糧喜事)

절량이란 문자 그대로 양식을 절약한다는 뜻인데 곧 먹을 것을 절약하여 회사한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남을 돕는 일 가운데 가장 손쉬운 법으로 '십사일반(十

朝夕) 두 때 혹은 삼시(三時)에 밥 지을 때 마다 식구 수대로 한 사람당 쌀 한 술씩을 덜어 내고 밥을 짓되 이 쌀을 일정기간 모았다가 불전에 공양미(供養米)로 올리는 회시법입니다. 여기에는 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식량은 사람뿐 아니라 일체 유정(有情)들이 한결같이 음식의 자량(資糧)으로 생명을

◇ 설법과 침묵

부처님께서 어느 날 오후 아난다를 데리고 아지타바티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셨습니다. 목욕을 끝낸 후 부처님은 아난다의 청을 받아들여 바라문 람마카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람마카의 집에서는 많은 비구들이 모여 설법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문 밖에 서서 비구들의 설법이 끝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윽고 설법이 끝난 것을 안 부처님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비구들이 나와 문을 열고 부처님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은 자리에 앉은 뒤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하였으며 무슨 일로 여기 이렇게들 모였느냐?"

"부처님, 조금 전에 저희들은 법을 설하였으며, 그 법을 설하기 위해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착하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모여 앉으면 마땅히 두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하나는 설법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침묵을 지키는 일이다."

(中阿含 羅摩經)

◇ 독 문은 화살

부처님께서 사뱃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말롱카 존자(尊者)는 홀로 조용한 곳에 앉아 이렇게 생각했다.

'세계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한한 것인가 유한한 것인가? 목숨이 곧 몸

인가 목숨과 몸은 다른가? 여래는 마침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마침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가? 부처님은 이러한 말씀은 전혀 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태도가 못마땅하고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나를 위해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씀한다면 수행을 계속하겠지만, 영원하지 않다면 부처님을 비난한 뒤에 떠나야겠다.'

말롱카는 해가 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로 갔다. 아까 혼자서 속으로 생각한 일들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부처님께서 저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진실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기탄없이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물으셨다.

"말롱카, 내가 이전에 너를 위해 세상은 영원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 수행을 하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밖의 의문에 대해서도, 내가 이전에 너를 위해 이것은 진실하고 다른 것은 다 허망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 도를 배웠느냐?"

"아닙니다."

"말롱카여, 너는 참 어리석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일찍이 너에게 말한 일이 없고 너도 또한 내게 말한 일이 없는데, 너는 어째서 부질없는 생각으로 나를 비방하려고 하느냐?"

말롱카는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고

머리를 떨어뜨린 채 말이 없었으나 속으로는 의문이 가지지 않았다. 부처님은 비구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 부처님이 나를 위해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를 따라 도를 배우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 문제를 풀지도 못한 채 도중에서 목숨을 마치고 말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독 문은 화살을 맞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을 때 그 친척들은 의사를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이 화살을 뽑아서는 안 되오. 나는 먼저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

게도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은 있다. 또 나는 세상이 무한하거나 유한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치와 법에 맞지 않으며 수행이 아니므로 지혜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고, 열반의 길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한결같이 말하는 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어째서 내가 이것을 한결같이 말하는가 하면, 이치에 맞고 법에 맞으며 수행인 동시에 지혜와 깨달음의 길이며 열반의 길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마

것이구나. 이 도는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얻는 것이고 족할 줄 모르면 얻을 수 없다. 이 도는 군중을 멀리 떠남으로써 얻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번거로움 가운데서 얻을 수 없다. 이 도는 바른 생각으로써 얻는 것이고 그릇된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다. 이 도는 고요 속에서 얻는 것이고 시끄러운 속에서는 얻을 수 없다. 이 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때 아니뤼타의 생각을 아시고 아니뤼타 앞에 나타나셨다.

"착하다. 아니뤼타. 너는 대인(大人)의 깨달음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 다음 한 가지는 부질없는 꾀변을 하지 않는 일이다. 너는 여덟 가지 대인의 깨달음을 생각해 수행하는 동안 욕심과 욕지 못란 것을 버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아 초선(初禪)을 거쳐 제이, 제삼, 제사 선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이 대인의 깨달음을 생각하고 제사선(第四禪)의 기쁨에 들어가면, 여인들이 여러 가지 옷을 옷장에 가득 채워 두고 즐겨워하듯이 만족함을 느끼고 기쁨에 넘쳐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열반의 길을 가는 너는 남루한 옷도 마음에 들 것이고, 빌어먹는 밥도 맛이 있을 것이며, 나무 밑 풀자리에 앉아도 마음은 늘 즐거울 것이고, 병들어 누워 있을 때 적은 거름으로 만든 약이라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 다시 베사카라 숲으로 돌아오셨다. 그리

고 비구들에게 위에서 말한 여덟 가지 대인의 깨달음을 가르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마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마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마라. 꾀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꾀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이 욕심을 적게 가지는 법이다."

또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의식주나 약을 얻더라도 그것을 만족하게 여김이다. 멀리 떠나는 법이란 비구의 처소에 어떤 비구, 비구니, 신남(信男), 신녀(信女) 혹은 왕이나 이교도가 오더라도 비구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기는 마음에서 진실한 법만을 알려주는 것이다. 정진하는 법은 비구가 나쁜 법을 버리고 좋은 법을 얻기 위해 정진할 때에 확고하게 설법에 대한 책임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바르게 생각하는 법이란 비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전에 해 온 온갖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법이란 법의 흥성하고 쇠함을 지혜로 살펴 네 가지 진리(四聖諦)의 도리를 잘 아는 것이다. 꾀변을 즐기 않는 법이란 그 마음이 꾀변 없는 경지로 나아가 부질없는 이론이 끊겨진 경지에 이르러 마음이 해탈하는 것이다."

(中阿含 八念經)

진리의 여율

인지를 알아야겠소. 성은 무어고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겠소. 그리고 그 활이 뿔나무로 되었는지 물푸레 나무로 되었는지, 화살은 보통 나무로 되었는지, 대로 되었는지를 알아야겠소. 또 화살깃이 매달로 되었는지 독수리 털로 되었는지 아니며 닭털로 되었는지 먼저 알아야겠소'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는 그것을 알기도 전에 온 몸에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이다. 세계가 영원하다거나 무상하다는 이 소견 때문에 나를 따라 수행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세계가 영원하다거나 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에

땅히 이렇게 알고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롱카를 비롯하여 여러 비구들은 기뻐하며 받들어 행했다.

(中阿含 箭喻經)

◇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얻는 도

부처님께서 베사카라 숲에 계실 때 아니뤼타(阿那律)는 파치나 숲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선정(禪定)에 들어 생각하였다.

'아, 이 도는 욕심이 없는 데서 얻는 것이고 욕심이 있으면 얻을 수 없는

치매, 중풍,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가정처럼 포근한 만다라요양원

불교충지종 사회복지재단 부설 흥국사 만다라요양원은 10월 19일 개원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정처럼 포근한 자비와 사랑을 제공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전국 어느곳에서나 가능함.
(장기요양등급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 거동하지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
2등급: 걷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 입소정원 : 6명 (선착순 입소함)

□ 본인부담금 : 1등급 : 40만원, 2등급 : 월 35만원

□ 연락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1가 150-2, 흥국사

전 화 : 063-224-4358, 016-651-8053. 담당자: 지정 정사

세상사는 이야기

철새들이 떠난 자리

새로 이사 온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조금 큰 하천이 흐르고 있다. 흐르는 물의 양은 많지 않지만 늘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 주위에는 녹지 대도 조성되어 있고 산책 길도 있어 그나마 눈을 즐겁게 해 주고 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도 조금은 볼 수 있어 때때로 내려다 보며 산이 가까이 없는 아쉬움을 달래곤 한다.

외출했다 돌아올 때에는 늘 하천 길을 따라 집까지 걸어 오며 내 나름대로 하천의 이곳 저곳을 살펴면서 온다. 하천에는 철새들이 날아와 해업도 치고 자택질도 하며 노는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다. 대부분 청둥오리 종류인데 재두루미들도 날아와 오리들과 같이 놀고 있다. 때를 지어 날아 다니는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같이 거대한 군무는 아닐지라도 제법 멋지게 날고 있다. 특히 재두루미들은 그 큰 날개를 펼치며 날아 오르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날개를 접고 서있는 모습은 더욱 우아하다.

난 늘 다리 위에서 가던 걸음을

이 추운데 공사를 해야만 하는가? 새들의 작은 삶의 터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여러 날 걸려 온통 다 파헤쳐 놓고 중장비들은 철수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겨울에 공사를 끝낼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 원망스럽다. 철새들이 돌아간 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후로도 난 철새들이 떠난 자리를 아쉬운 마음으로 늘 하던 대로 한참씩 보고 지나갔다. 반갑게도 일부이긴 하지만 오리들이 돌아왔다. 너무 반가웠지만 같이 좋아할 아무도 없어 혼자 속으로만 좋아했다. 자세히 보니 재두루미들은 오지 않았다. 재두루미 한 마리만 돌아왔다. 그것도 오리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홀로 서있는 모습이 석양빛을 받아 더 쓸쓸해 보였다.

재두루미 친구들은 어디다 버리고 오리들을 따라 왔을까?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한 것은 아닌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짝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내 머릿속을 어지

하천 제방길 철새 보는 즐거움

공사로 동지 잃은 새들 보며 안타까움

멈추고 철새들의 노는 모습을 쳐다 보는 습관이 생겼다. 모두들 별 관심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데 혼자 하천을 내려다 보고 있는 나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나의 이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철새들이 맛있는 먹이도 먹고 자유롭게 놀고 있는 이 하천에 공사용 중장비 여러 대가 동원 되어 하천바닥을 마구 파헤치고 있다. 가장자리에 있던 수초들도 모조리 파내고 있었고 양쪽에 있던 큰 돌들도 파내어 한쪽에 쌓아놓고 있었다. 이 곳에 살고 있던 철새들은 어찌란 말인가? 철새들은 이미 어드론가 다들 떠나버리고 파헤쳐진 바닥만 속살을 드러내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다. 오죽 갈 곳이 없으면 이 작은 하천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을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살만한 곳을 찾았을까? 아직 찾지 못해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지 않을까?

가슴이 아리도록 아파 온다. 사람들은 왜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일까?

쉽게 하고 있다. 자기들의 무리와 같이 행동해야 그들이 우리나라를 떠날 때 같이 고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오리들 무리에 같이 있으면 고향으로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이야.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혼자 쓸쓸히 보내는 재두루미가 측은하고 안타깝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프다.

계절도 어느 틈에 봄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란 금잔디 사이로 여기저기 푸른색의 손이 흔들리며 손잡아 주기를 기다리는 새싹과 그 사이로 앞다투어 고개를 내밀고 있는 온갖 어린 풀들도 반갑다고 눈인사를 한다. 힘차게 날갯짓을 하는 까치들도 제 세상을 만난 듯 마구 찾아대며 열심히 나뭇가지들을 물고 가서 멋진 집을 짓고 있다. 따뜻해진 날씨에 철새들은 벌써 그들의 고향으로 다 떠나갔는지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 오리들과 함께 재두루미도 고향을 잘 찾아 가서 헤어졌던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박묘정

불교설화 <42>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순식간에 일어난 서울 서초동 삼풍 백화점의 붕괴사고는 온 나라를 경악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5백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인재 서울의 한 최고급 백화점의 붕괴가 가져다 준 충격! 사람들은 한동안 삶의 방향을 잃은 듯 애만 태워야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준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지(死地)에서 230여 시간 만에 구출되어 첫 번째 기적을 연출한 20세의 최명석군, 285시간만에 극적으로 생존한 18세의 유지환양, 19세 소녀의 힘으로 죽음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16여일 만인 377시간만에 제3의 기적을 일궈낸 박승현양. 그런데 이들의 기적적인 생존 뒤에 하나같이 기도와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15일 17시간을 버틴 박승현 양의 생존은 우리 불자들에게 큰 교훈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놀러온 고등학교 동창 정원리와 밤늦게까지 얘기를 나누다 새벽에야 잠이 든 탓인지 승현이가 6월 29일 아침에 눈을 뜬 때는 몸이 찌뿌둥한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원래 비번이었지만, 집안 일이 있다는 선희 언니와 근무 날짜를 교대하였던 것입니다.

'바꾸지 말 것을 그랬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친구 정원리와 삼풍백화점으로 함께 출발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 정원리와 함께 지하 3층 식당에서 간식을 먹은 승현이는 지하 1층의 아동복 코너로 갔고, 정원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승현이가 매장안의 카운터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쿵 소리를 내며 크게 흔들리더니 천정에 붙어 있는 벽돌들이 눈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승현아! 피해!" 누군가가 소리를 쳤지만 바닥이 흔들리고 먼지가 앞을 가려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물탱크가 뒷머리를 때려 승현이는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사방은 깜깜했고 뒷머리에서는 피가 흘러 뜨뜻했습니다. 옷을 찢어 머리에 댄 승현이가 조심스레 손발을 뻗어 보았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몸을 옆으로 굴러 보니 두세 바퀴 구를 정도의 여유는 있었습니다. 사방에서는 질규와 신음 소리가 들렸고, 오른쪽에서는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언니의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머리 뒤에서도 옆 매장에서 근무하는 언니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로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만져 보니 물이 고여 있었지만 심한 냄새가 나는 녹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한 포도주스가 내내 승현이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같은 매장에 근무하는 언니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삼풍 붕괴 현장의 기적 같은 생존

그러나 옆 매장의 언니만 힘없는 신음소리를 낼 뿐 같은 매장 언니의 대답은 영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승현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 매장 언니의 꺼져가는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나도 곧 죽을 것 같아"

"언니, 언니!"

그러나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이 머리 위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구하러 왔는가 보다" 입이 바짝 났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오히려 양쪽 옆의 콘크리트 더미가 밀려들면서 팔을 제대로 뻗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삽화: 정윤지

오른쪽 무릎에도 콘크리트 더미가 밀려들며 무릎을 펴기도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돼. 나는 꼭 살아야해. 몇 달 전 장사가 안 된다고 식당을 그만둔 엄마 아바를 위해서도.....'

동시에 승현이는 평소 다녔던 금융사 주지 월공스님의 법문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염송 하세요.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소원을 천수천안(千手千眼,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보살과 주십니다."

승현이는 그때부터 관세음보살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어 있는 시간에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찾았습니다.

한편, 승현이의 어머니 고순영 보살도 낮에는 서울교육대학교에 설치된 실종자 가족본부 임시 법당에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불렀고, 밤에는 금융사를 찾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을 드렸습니다. 안팎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침울 같은 어둠 속에서 시간의 흐름마저 잊어버린 승현이가 갈증과 허기로 입술이 새까맣게 타들어 올 때쯤이었습니다. 깜빡 잠이 든 승현이에겐 연초록빛 나무들이 백백이 들어 차 있는 숲이 보였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바람

도 불어왔습니다. 타는 목을 축일 수 있는 감로수도 거북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승현이는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에 익은 그곳은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자주 찾았던 월계동 금융사였습니다. 승현이는 평소 하던 것처럼 법당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그때 법당으로부터 노스님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와, 너그러운 미소를 보이며 무언가를 승현이의 손에 쥐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빨간 사과였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눈을 뜨자 사과는 손에 없었고, 잠깐의 자유는 꿈이었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탕탕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마침 지하 1.2층 잔해 제거를 하던 안양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잔해더미 속에서 높이 10cm, 너비 30cm가량의 구멍을 발견하고, 구멍을 넓히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순간 승현이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 주세요."

이때가 7월 15일 오전 10시 58분. 생존자 확인 무전이 지휘본부에 전달되었고 현장과 온 나라는 환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지 불과 17분만에 구조되어 승현이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5일 17시간 만에 구출되어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진 승현이를 진찰한 의사들은, "맥박이 조금 빠를 뿐, 호흡과 혈압은 거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은 승현이가 매몰된 후 구조될 때까지 음식은 물론, 물 한 모금 먹지 않았다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물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5~7일. 길게 잡아 7~10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의사들은 한결 같이 말했습니다.

"오래 물을 먹지 않아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콩팥 기능에 이상이 먼저 발생하는데, 박승현 양은 콩팥 기능에 별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물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바, 만일 사실이라면 놀라운 기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박승현 양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 같은 생존!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세음보살의 가피요 불보살의 불가사의한 신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기적을 보인 최명석 군의 어머니도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심정으로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불렀고, 유지환 양의 어머니 정광임 보살도 낮에는 자원봉사자, 밤에는 중증으로 입원한 남편을 간호하면서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였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염송을 통하여 이룩된 이 세 기적은 불심(佛心),모심의 승리요, 온 국민의 승리로써 영원히 기록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심일화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바라밀 공부방은 자라나는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학습, 교육하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이용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차상위 아동

프로그램

학습활동 : 국어, 수학, 영어, 한문

신체활동 : 요가, 태권도

문화활동 : 영화보기, 비디오상영

특별활동 : 컴퓨터, 미술수업

급식제공 : 일일1회석식제공, 간식제공

홈페이지 : happylog.naver.com/baramil.do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컴퓨터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2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바라밀 아동들의 문화프로그램 신장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 094-059285-04-046 예금주 : 바라밀 지역아동센터

수행의 길에서

모으기와 버리기

자 인 행 (운천사)

상반기 49일 불공이 시작되기 전에 발령지로 이사해야 한다고 한다. 틈나는대로 작은 물건들은 따로 박스에 담아 조금씩 포장하고 버리고 갈 것들은 따로 모으느라 4층 계단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 우리 집에 이렇게 버려야 할 물건이 많은 줄은 미처 몰랐다. 3년 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오면서 안 쓰는 물건들은 대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버리고 왔다. 겨우 3년 만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집안을 채우고 있을 줄은 이렇게 집안을 뒤집어 놓으니 알 것 같았다. 이것은 다음에 또 쓰일 것 같아서 못 버리고, 저것은 어렵게 구한 것이라 못 버리고 또 그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못 버리고 해서 집안 구석구석에 쌓아 두었던 것들을 이번엔 모두 버

렸다. 그리고 새 발령지인 운천사로 이사를 했다. 사택 부엌공사가 미처 마무리 되지 않아서 부엌에 들어갈 집들을 자성학교 마룻바닥에 내려놓았다. 우리 집 부엌에 들어갈 그릇이며 술이며 주전자, 냄비 등등 부엌살림이 그렇게 많은 줄이야.... 나름대로 많이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많이 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제자리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끊으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승직자의 길을 선택한 내 마음속에 이렇듯 색(色)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웅크리고 있을 줄 내 자신도 미처 몰랐다. 나는 다시 옷장과 장롱 그리고 신발장 속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끄집어 내어 풀었다. 그리고 다시 정리를

시작했다.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모조리 필요한 곳에 주거나 버리기로 했다. 부엌살림도 마찬가지. 버리기 조금은 아까운 것도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모두 다 버리거나 필요한 곳에 줄 수 있도록 정리했다. 새벽녘에서야 겨우 정리를 마치고 험렁해진 장롱과 옷장 그리고 신발장 바라보며 그동안 버리기보다 모으기에만 열중하고 살아온 내 자신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들의 삶은 모으기와 버리기의 연속이고, 모으기보다 버리기가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 이사로 깨달았다. '아직은'이라는 이유와 '나중에'라는 핑계로 버리지 못해서 주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진정한 주위에 두어

야 할 것들을 두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소유는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 소유가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 질 때 그때부터 그것은 짐스러움으로 변해 내 어깨를 짓누른다. 얼마 전 열반에 드신 어느 스님은 무소유를 평생의 화두로 삼고 철저하게 무소유를 실천하셨다고 한다. 세속의 삶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얼마만큼 버리고 얼마만큼 가져야 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모으기와 버리기의 조화롭고 적절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은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들의 이야기

봄 눈을 보며

은 산하를 하얗게 깨끗하게 뒤덮은 눈 산위에서는 여유롭고 아름답게 나무위에 걸터앉았지만 길위에서는 무참히 차에 짓밟히면서 사라져 갔지요. 다들 각자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할 복한가 봅니다. 도로는 흰색도 검정색도 아닌 눈도 비도 아닌 상태로 질퍽하니 온통 차들의 경적소리로 난리통인데 또 한편으론 고요적하게 나무 가지에 얹힌 채로 생각지도 못한 도심속의 눈꽃을 선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 퇴근길 인도에서는 높은

건물위의 눈이 얼마나 지쳐 반쯤 녹은 상태로 한꺼번에 자발적으로 투척되는 바람에 누구라도 다칠까봐 조마조마한 광경까지.. 하늘에서는 한가지로 내린 눈이 이 사바세계에선 순식간에 다른 모습들을 선사하니 마치 순식간에 갖가지 삶을 사는 인간들을 자연이 조종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감히 들었습니다. 휴우~~~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적멸심(권순복)

새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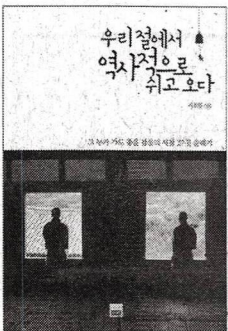
◀ 메마른 손 정성껏 손질하는 요령 얼굴 손질을 잘 했는데 손이 엉망이면 매력에 없다. 젊은 사람도 부엌일을 많이 하면 세제가 유분을 앗아가 짜글짜글한 손이 되어버린다. 그럴 때는 마사지 크림에 영양 오일을 섞어서 5분 간 마사지를 한다. 뜨거운 물 수건으로 닦아 내고 유액을 발라 두면 다음 날 아침에 부드럽고 싱싱한 손이 된다. ▶ 김을 향이 나게 굽는 방법 김을 한 장씩 구우려면 거친 면을 한 번에 굽고, 두 장을 겹쳐 구울 때는 매끄러운 부분을 안이 되도록 하여 구우면 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 운동화 잘 말리는 법 운동화를 빨면 깔판 등에 물이 배어 있어 비스듬히 세워 놓아도 계속 물기가 새어 나온다. 그래서 운동화를 말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마련이다. 그럴 때는 맥주

◀ 스웨터 잘 보관하는 법 스웨터는 부피가 커서 서랍에 보관하기가 곤란한 품목이다. 또 접어서 넣어 두면 눌리기 때문에 입어도 볼품이 없게 된다. 따라서 스웨터를 보관할 때는 양 팔 부분을 몸통 부분 위에 놓고 목 부분 쪽에서부터 둥글려 접어서 서랍에 넣는다. 그러면 한꺼번에 서너 장 정도는 한 서랍 안에 수납할 수 있다. 선반 수납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양팔을 가로로 접고 가운데로 한번만 접어서 개기면 된다. ▶ 배개를 세탁할 때 대부분 배개를 빨 때에는 배개 피만 벗겨서 세탁기에 넣는데, 만약 배개 속까지 더러워졌다면 배개를 통째로 세탁기에 넣는다. 그러면 깔과 속이 다 깨끗하게 된다. 그러나 메밀, 좁쌀, 양털 등 곡물이나 동물성 섬유로 된 배개속인 경우는 절대로 통째로 넣어서는 안 된다.

이달의 추천도서

우리책에서 역사적으로 쉬고 오다

이호일 지음/ 가람기획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송유역불교를 썼던 조선 시대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현재까지도 많은 신자를 거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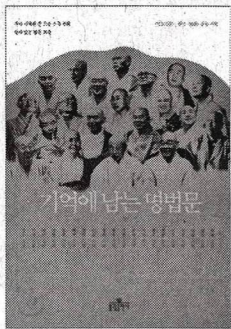
리고 있으며, 사찰은 역사적 유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저자는 전국 지방곡명 명찰들을 찾아 다니며 직접 사진을 찍고 역사를 뒤쫓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삼보사찰(불보 사찰인 통도사, 법보 사찰인 해인사, 승보 사찰인 송광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5대 적멸보궁(자장 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영축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의 적멸보궁을 이르는 말), 3대 관음성지(우리나라 관음기도 도량으로 동해의 낙산사, 서해의 보문사, 남해의 보리암을 이르는 말)를 비롯 우리 국토의 명산 승지마다

반드시 만나게 되는 천년고찰 27곳을 가려 뽑았다. 사찰의 유래에서부터 역사적 사실, 가람배치, 각 건물의 의미 등 사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전통사찰들 통해 오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다. 『우리 책에서 역사적으로 쉬고 오다』는 불자에게는 명찰 순례 안내서가, 불교에 관심을 가진 독자에게는 불교를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기억에 남는 명법문

편집부 지음/ 불광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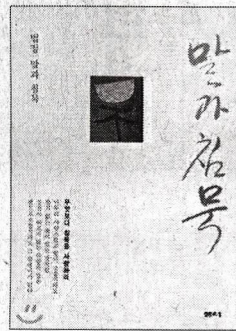
불교계 주간지인 '법보신문', 그리고 월간 <불광>에 지난 2009년과 2010년 초에 실렸던 큰스님들의 법문을 정리한 책이다. 일반인에게 곤혹스러운 선(禪)법문을 제외하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법문을 위주로 선별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성수

스님, 각성스님, 해인스님, 정련스님, 통광스님 등 큰스님 스무 분의 법문을 가려 엮었다. 법석(法席)에 앉았던 스무 명의 큰스님들은 각각 '마음을 닦고', '복을 짓고', '소욕지족으로 살고', '세상과 여유롭게 소통하자'고 이야기한다.

본문에는 큰스님들의 행적, 느껴왔던 감정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바빠 움직이지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세상, 급기야 뒷걸음치는 세상에 그리고 개인에 대한 질타도 담겨 있다. 조계종의 명망 있는 원로 큰스님들의 법문을 다양한 예화를 곁들여 쉽게 풀어낸 이 책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만날 수 있다.

말과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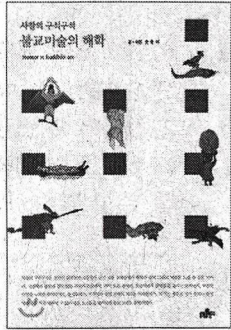
법정 지음/ 샘터사



불타와 조사들의 어록을 스님이 주제별로 엮고,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을 단 불교 입문서. 뜻을 담은 말은 침묵을 배경으로 발음될 수 있고, 말 끝에 오는 침묵은 새로운 뜻을 담은 말을 잉태한다. 침묵을 배경으로 한 불타나 조사들의 말씀이 빛으로 남아 우리 삶을 비추어 줄 것이다

불교미술의 해학

권중서 지음/ 불광 출판사



불교 미술을 통해 불교를 보다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종교의 속성을 성스러움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진·선·미라는 가치를 초월한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종교는 진리, 도덕, 아름다움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발현하게 된다. 바귀 할하면 종교 미술은 성스러움을 담게 된다는 뜻인데, 『불교미술의 해학』은 불교미술을 통해서 불교의 참된 뜻에 다가가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260장의 도판을 자신의 발과 손 그리고 눈을 이용해 확보함으로써 책의 생생함을 더했다. 앞서 언급했듯, 불교건축이나 불교미술은 단순한 예술이 아닌 종교예술이라는 점에서 불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게 된다. 이 책은 절과 탕화 등 불교 예술 작품에 담긴 불교적 가치를 경전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

은 물론 불도의 길을 걷는 신자들에게까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책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불교미술 속에 담긴 해학과 풍자를 함께 다룸으로써 독서의 흥미를 부여한다.

동원골목시장
DONGWON TRADITIONAL MARKET

삼 인삼
동원시장점 가-42호 02. 499-9006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조절. 간보호. 발기부전증개선. 감기. 운동기능 향상. 항염. 항암. 방사선. 피부보호 및 항산화 작용.
홍삼 효과는 적응소 (adaptogen : 어댑토젠) 효과 :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오는 각종 누병. 육체적, 화학적, 생물학적 스트레스등에 증가시켜 생체가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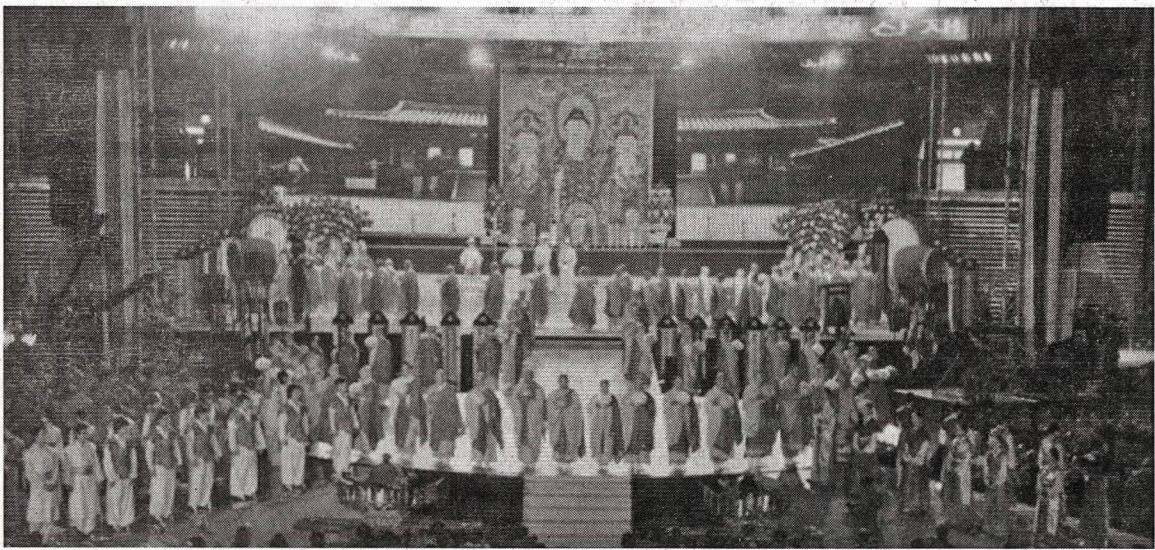
인삼의 고장
금산인삼의 여러 제품
수삼. 홍삼. 장뇌삼. 절편.
환. 홍삼차류. 과자류. 캔디류

인삼의 효능
〈명의별록(名醫別錄)〉이나 〈본초강목(本草綱目)〉에도 인삼의 효능을 집약 수록. 효능으로 스트레스 해소, 알콜 해독, 당뇨병, 암,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 질환, 빈혈증 등. 이 외에도 혈액 중의 섬유소원 분해제,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홍삼의 효능
혈당

태고종 2010영산재 성대한 봉행식 가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도 기원



▲ 태고종 스님들이 영산재를 재현하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3월 11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2010영산재’가 성대히 봉행 했다.

전국에서 4백대의 관공버스로 상경한 2만 여 불자가 경기장 안팎을 가득 메우며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식전행사인 영산재 관련 영상물 방영 등 문화공연

을 시작으로 영산재 시연,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법회 순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이날 108명의 어산단에 의해 시연된 영산재는 전통 영산재에 내재된 종교성 등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예술성 등을 극대화해 깨침의 소리(타고 흥고 시연 도량계)와 천년의 빛과 소리(봉청 감로루 북청계 천수바라 거불 거령산 [반야심경] 법고

무 담들이 회심곡 화합의 북소리 화향)로 나뉘어 각색·진행됐다. 시연 시간도 전통 영산재의 절반인 1시간 여로 단축돼 공연의 짜임새로 구성 하였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봉행사에서 “11월 11일 개최될 G-20 정상회의는 국가적인 대행사이다. 2010영산재는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이 세계 중

민적 염원을 모아 기원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에서 “2010영산재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하나돼 국민통합과 국운 융창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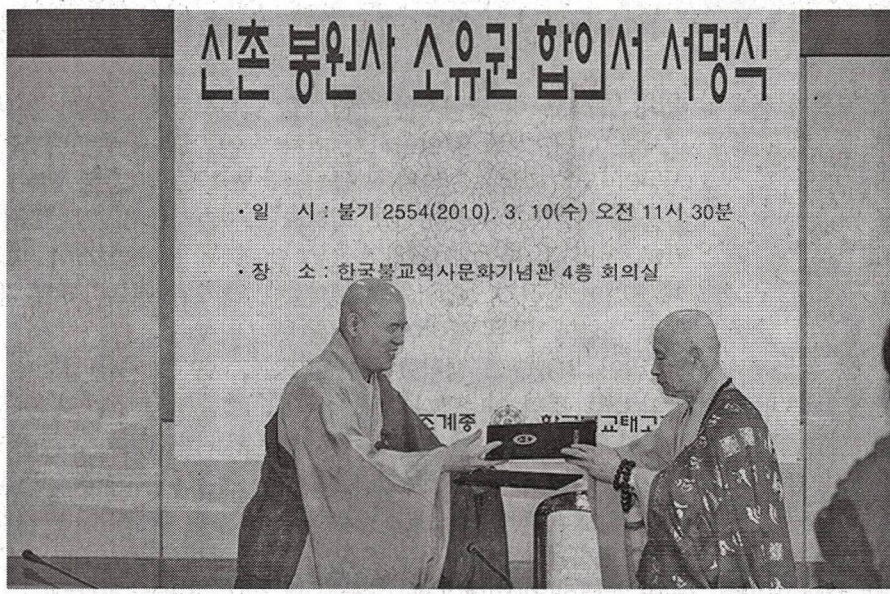
이에 앞서 태고종 전국신도회 유운순 회장은 축원 발원문을 통해 “영산재를 통해 진리의 법음이 울려 퍼져 국민 모두가 나날이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원법회 후에는 국악 및 관현악단, 남도명창 등 축하공연이 이어져 참가 대중의 흥을 더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스님, 총지종지성 통리원장, 진각종 혜정통리원장 등, 각 종단 원장스님을 비롯하여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 위원장, 각국 대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했다.

영산재는 부처님 당시의 영산회상을 도량에 꾸며 영가의 해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대중에게 불법의 가르침과 신앙심을 고취하여 불법 인연을 짓고 업장소멸의 개점을 주는데 그 뜻을 주고 있다.

조계종-태고종 봉원사 문제 타결

재판부결정 준수, 합의서 서명



▲ 양 종단 총무원장 스님들이 합의서에 서명 후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이 3월 10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1962년 통합종단조계종 출범 이후 지속된 신촌 봉원사 갈등이 근 50년 만에 종식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근 50년 동안 우여곡절과 말 못할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끝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준 대책위원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

로 두 종단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불교종흥을 이룰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 역시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양 종단이 합의를 이뤄 화해하는 모습으로 한 자리에 앉게 돼 기쁘다”며 “합의 도출을 기점으로 앞으로 유대와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봉원사 문제 타결을 계기로 나머지 사찰들 역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풀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서의 내용은 봉원사 전체

토지 가운데 조계종은 7만5910㎡(2만3003평), 태고종은 26만660㎡(7만8987평)을 각자 소유토록 한 지난 1월2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양 종단이 준수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봉원사 법당과 요사채, 후사면은 태고종이 나머지 토지는 조계종이 갖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묘사 3채는 조계종 소유, 주차장 부지와 비탈은 태고종 소유로 돌아갔다. 가장 큰 쟁점도 의견합의를 보았다. 태고종이 1960년대에 제3자에게 매도했던 토지 6674㎡(2022평)은 조계종이 소유하고, 현재 조계종이 진행 중인 점유취득 시효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에 대해 태고종이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조계종 측 봉원사 주지 법안스님, 봉원사 대책위원장 성직스님, 태고종 측 봉원사 주지 및 대책위원장 일운스님 등이 배석했다.

대불련 총동문화, 올 3억원 기금 조성

재학생 불교활성화와 군포교 집중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화(회장 명호근, 불교방송 이사)가 올해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불자·대학생 인재양성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불련’은 ‘장학금 지급 및 학생회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2억 원 가량의 기금을 만들었다. 올해 안에 3억 원의 목표 금액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는 재학 중인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사회의 동량이 되도록 인재양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교학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총동문화는 이달 들어 전국 대

학들의 개학을 맞아 올 핵심추진사업인 재학생 불교학생회 리더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전국 주요대학 캠퍼스 포교자원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또한 대불련 군포교지원단(단장 박호석)은 지난 1월부터 군법사가 배치되지 않아 법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군 제1공병여단을 비롯한 20여개 부대의 군 법당에 월 40명의 법사를 지원한다. 군포교지원단은 또 법당을 찾는 월 2,200여명의 불자장병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도서, 반식, 법구 등의 비품을 지원키로 했다. 대불련 총동문화 차원

의 ‘군법당 방식보내기 운동’을 시작해 지난 1월에만 이미 4백여개의 방식을 지원했었다. 올해 대불련의 군포교지원사업-예산은 1억 원 가량으로 일부를 대한불교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다.

법사요원의 자질향상과 의례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연 2회의 합숙훈련과 한국사이버불교대학(학장 정병조) 교육과정의 이수계획도 포함돼 있다.

한편, 매월 열리는 대불련총동문화 열린 법회는 단순한 법회방식으로 벗어나 대불련 총동문화 정제성 찾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계사 새 주지 토진 스님

세민스님 사표제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2일 신임 조계사 주지(재선관리인)에 현 부주지인 토진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 했다. 신임 주지 토진스님은 “부처님과 총무원의 대중스님 잘 모시고 신도회와 잘 화합해 원장 스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은 “자비나눔의 가장 큰 실천덕목은 용서와 화합이라는 총무원장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

들겠다”면서 “토진스님의 주지 임명을 환영하며 주지 스님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축하했다.

조계사 전 주지 세민 스님은 17일 총무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스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신도회는 세민스님의 사표 제출 후 후임 주지로 토진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총무원

장 자승 스님과의 면담 후 신임 주지스님과 함께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총본산 성역화와 도심포교 확대, 공개살림 등의 역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토진스님은 월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지난 1980년 법주사에서 이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6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국장과 수국사 주지, 조계사 부주지를 역임했으며 13대에 이어 14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진각종 교육 재 과정 가져



▲ 도훈 총인과 기념 촬영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11일 서울 하월곡동 무진

실법전에서 제10기 심학과정 수료식(원주정사 외 8명) 및 제11

기 아시아과정(자비훈전수 외 8명)과 제7기 교학과정(수각정사 외 4명)입학식을 가졌다.

교육원장은 “교육원의 재교육과정은 수행과 교화에 대한 한층 깊은 이해와 다양한 사회체현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재교육의 장”이라면서 “심학과정 졸업생은 부단한 정진으로 끊임없이 탐마하여 자기반성과 자기개발을 하여 종교인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혜정 통리원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과 입학생들의 불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진리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그림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태장계 만다라 *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비야인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하고 그 모태 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태장계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명원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신등 모두 414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금강계 만다라 *

금강계 만다라는 ‘금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생의 부처의 경계,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에게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만다라는 중앙의 생신위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 계전, 연경전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 구성표 *

▲ 사이즈 및 가격 (태장계, 금강계 만다라 가격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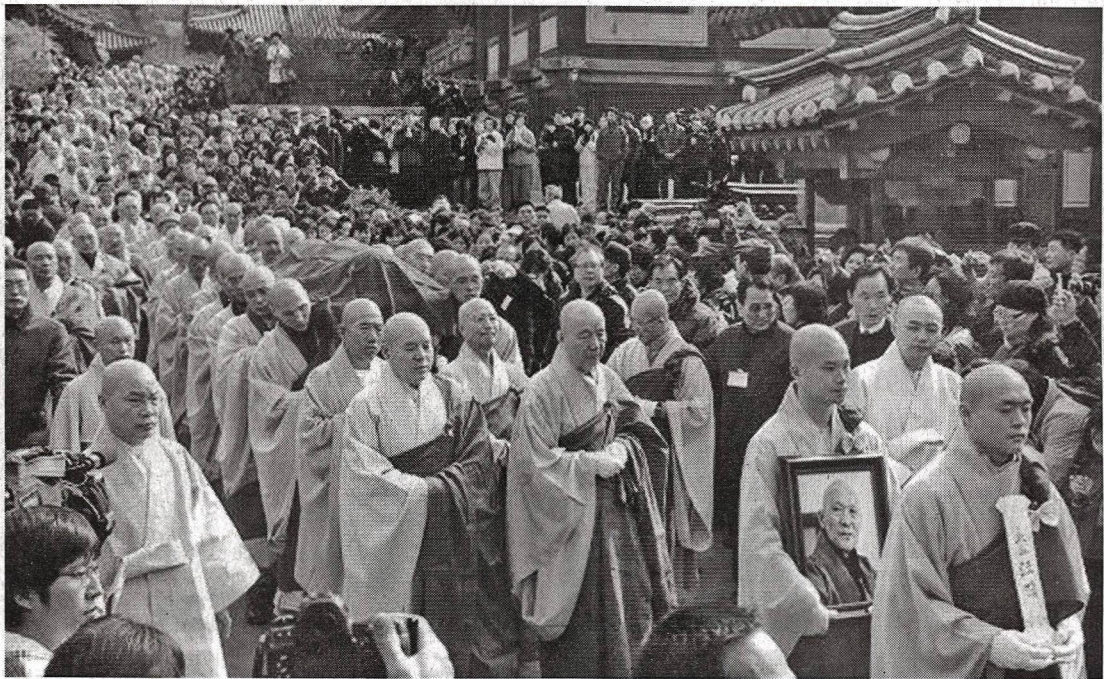
- ▶ 1000 x 1000 1개 650,000원 (액자포함)
- ▶ 750 x 750 1개 500,000원 (액자포함)
- ▶ 500 x 500 1개 300,000원 (액자포함)
- ▶ 250 x 250 1개 200,000원 (액자포함)

* 문의처 : 통리원 T. 02-552-1080~3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80-047811 예)불교총지총

불교총지총

법정 스님 입적(1932~2010)

“내 것이 남아 있다면 맑고 향기로운 사회 위해 써 달라”



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없이 평소 승복 입은 그대로 대비하라. 사리를 찾으려고도 답을 세우려고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2일 길상사 분향소를 방문하고 애도문을 통해 “스님께서는 그동안 무소유의 지혜를 일러 주시고,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몸소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서를 남기시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셨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도 길상사를 찾아 조문하고 “스님께서 남기신 무소유의 정신을 마음 속에 새기고 있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신 데 공감하며 평소 스님의 책을 많이 읽어 깊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11일 법정 스님에게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추서키로 결의했다.

-윤우재 기자
(관련기사 10면)

▲법정 스님의 법구가 대비장으로 향하고 있다.

평생을 무소유 정신과 청빈한 수행으로 일관했던 법정 스님이 3월 11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세수 79세, 법랍 56세로 입적했다.

스님은 3년 전부터 폐암으로 투병해 왔으며 지난 겨울 강원도 오두막을 떠나 제주 서귀포

인근에서 요양해 왔다. 최근 병세가 악화,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했으나 11일 오전 병세가 위급해져 길상사로 옮겨졌다.

다비준비위 대변인 진화 스님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적 전날 법정 스님이 모 든 분께 감사한다. 내가 금생에 저지른 허물은 생사를 넘어

참회할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해 달라.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버려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 “많은 사람 수고만 끼치는 일체 장례의식을 말라. 관과 수의를 따로 마련하지 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수용 불가”

명진 스님, 일요법회서 비판

조계종 총무원의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을 주지 명진 스님이 공개 거부했다.

스님은 3월 14일 1100여 신도 및 불자들이 동참한 일요법회에서 총무원의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직영사찰) 지정에 대해 총무원에게 봉은사 사부대중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스님은 설법을 통하여 “요즘 내가 박쥐 중, 염소 중, 혹은 부처님을 팔고 사는 가사 입은 도둑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며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승인”이라는 엄청난 소식에 우리 봉은사 신도들이 불쌍하고 안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스님은 “1960년대 강남개발이 일자 조계종 총무원이 18만 평에 이르는 봉은사 땅을 팔았다. 당시 주지였던 서용 스님은 분신자살까지 하려했으나 이미

상황이 끝난 후였다.”

또 “이제 좀 절이 되려고 하는데 안타깝다. 정말이지 봉은사 주지는 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잘하면 총무원이 손을 대려고 하니 말이다”라면서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 않은 승려가 되고자 1000일기도를 했다. 또 다시 싸우는 모습을 보여 신도들에게 상처를 주긴 싫어 결망내고 홀연히 떠날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의를 빚으면서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결정한 이유가 포교벨트 구상이라고 하더라. 그 벨트가 가족 벨트인지 형질 벨트인지 분명히 이야기해라. 150명에 불과했던 일요법회를 1000명이 넘는 불자가 참여하는 법회로 만들어 왔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포교인지 명확히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명진 스님은 “다음 주까지 내 물음에 총무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사찰

과 전국 신도를 대상으로 직영 폐지 1000만인 불자운동을 전개하겠다. 만약 과거와 같이 못된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봉은사에 들어오려 한다면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183차 임시회를 속개하고 총무원이 제출한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지정 동의의 건을 비밀투표 결과 찬성 49표, 반대 21표로 가결시킨바 있다.

중앙종회는 이어 선본사 특별분당사찰 전환 지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11표, 반대 58표로 부결시켰으며, 이에 따라 선본사는 현행대로 직영사찰로 남게 되었다. 이날 종회에서도 ‘전환’은 중립에도 없는 것이며, 특별분당금 사찰법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 등 이 안건은 상정하고 있겠다. 합격자들은 4월 8일까지 직지사서서 구축계 수 계산립에 참가한다.

승가고시 논술/면접 처음 시도

조계종 교육원에서 실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19일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진 4급 승가고시 결과·총 287명(응시자·가운데 280명(사미 159명, 식차마나니 121명)의 합격률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을 주창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 체제에서 첫 실시된 것으로 고시 대상자를 비롯해 종단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논술에서는 단순 지식이 아닌 교리 핵심을 이해해 현대 사회에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됐다”면서 “기

본교육기관(강원·승가대학 등)에서 4년간 꾸준히 공부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교리 이해에 사고력·창의력을 더한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4급 승가고시에선 논술형 문제가 최초로 출제되는 등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원의 방침이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부처님이 설한 팔정도 가운데 정념(正念)의 뜻 설명 △대승불교의 타력신앙이 기독교 등 서구종교 신앙과 다른 점 △중국 선종 5조 홍인스님에게 제출한 혜능스님과 신수스님의 계

승에 입각한 돈오와 점수의 의미 △불교의 유식학에서 말하는 5위 100법에서 5위에 대한 풀이 △출가자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인 4의(四依)의 내용과 현대사회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사교력과 창의력을 요하는 5개의 자유사술형 문제를 선보였다.

면접도 개인적인 수행과 불교의 대사회적 이해와 활동을 묻는 △비구계 수지 후의 계획 △종단의 역할 △자신의 출가 전·후 비교 등의 질문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사찰경영전문지도자’ 과정 개설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경영이 있는 사찰 운영’, ‘사찰 경영과 중생회향’을 목표로 사찰경영전문지도자 과정을 개설했다.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은 3월 25일 교내 정각원에서 제1기 사찰경영전문지도자 과정 입학식을 거행한다.

교수진으로는 성관 스님(동국대 상임 이사), 보광 스님(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대학)를 비롯해

동국대 경영대학 소속 안종상, 이재환, 윤재철, 유석천, 성상현, 이원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 밖에 前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지대 교수와 노부호 서강대 교수, 정석원 조계종단 변호사, 우승택 삼성증권 PB연구 소장 등이 외부교수로 강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입학식 당일 정각원장 법타 스님의 ‘이제는 사찰도 경영이다’ 특강을 시작으로 2010학년도 1, 2학기 32

주 동안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2강좌 연속 진행된다.

한편, 사찰경영전문지도자 1기에는 前 총무원 총무부장 현고 스님과 정각원장 법타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낙산사 정념 스님, 불암사 일면 스님, 옥수종합복지관 관장 사덕 스님, 진관사 계호 스님 등이 등록했다.

어울림 마당과 화합 한마당 東國大서 개최



▲ 지난해 제등행진 장면.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는 연등축제가 작년과 달라진 사항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는 소개했다.

3월26일 한국역사민족박물관 지하강당에서 열린 발표회는 이날 각 그룹별 내 사찰 대표자, 연회,울당단 대표 등 약 200여명

이 모인 가운데 먼저, 작년에는 연회인 어울림 마당을 장충체육관과 화합 한마당을 동대문운동장에서 이원화 한 것을 올해에는 동대에서 같이 한다고 했다.

또한 잠입등이 축제 후 안국사 거리에서 소속 사찰로 귀가하는 것을, 잠입을 못 본 시민의 아쉬움과 서울시의 요청으로 잠입물을 광화문 거리광장에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연등터널과 함께 전시 한다고 말했다.

연등축제는 5월 16일(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동대에서 화합 한마당을 시작으로 조계사 앞까지 연등행렬을 가진 후 11시 종각사거리 회향한마당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순길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
가 공동 집필 ...

밀교사상사개론

국판 / 책가 15,000원 / 불교출판중심출판부

육자대명왕전선(음마니반메종)의 유래와 공덕을 절찬
경전으로 본 경을 지나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산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설대승장엄보왕경

번역국판 / 책가 7,000원 / 불교출판중심출판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
였으며, 불교의 특징과 구분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불
교에 대한 개략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불교, 교양으로 읽다

국판 / 책가 15,000원 /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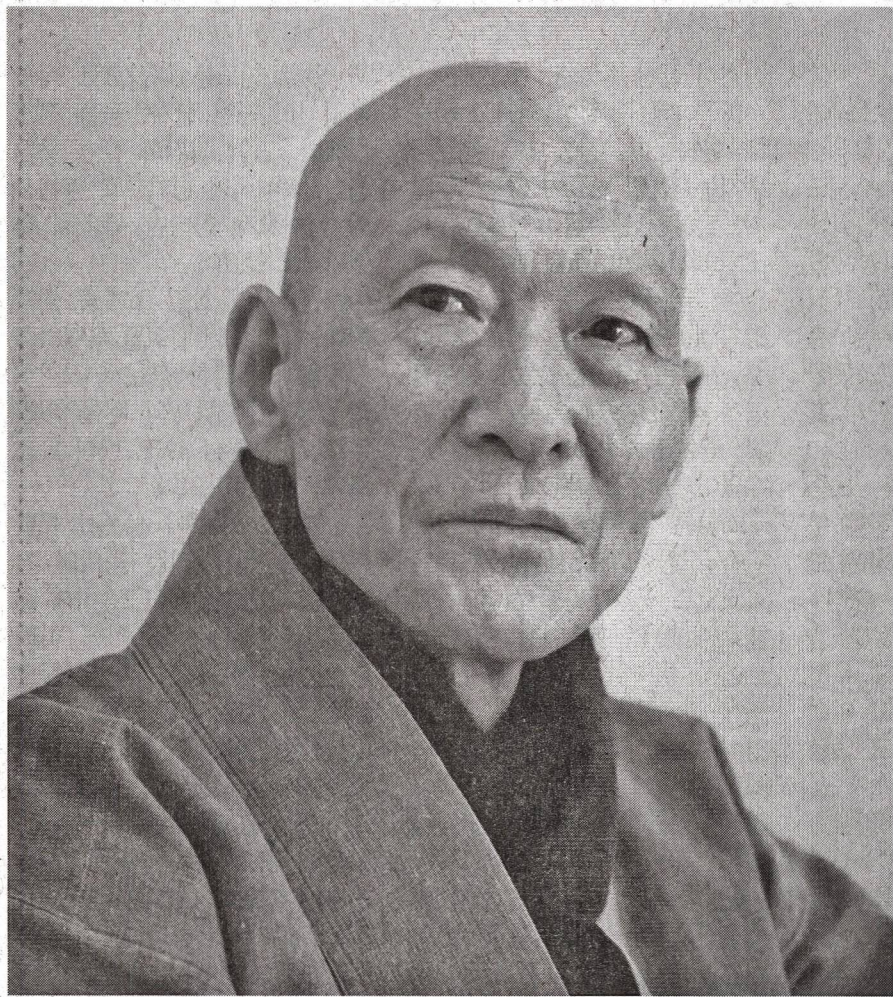
한국불교의식의 대명사인 천수경에서 왜 처음과 끝이
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비법을 밝히고 있으며
본 심요점을 통해 누구든 성불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
하고 있다.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국판 / 책가 8,000원 / 운주사

특집 법정 스님 입적

“스님은 가셨지만 남기신 참뜻은 불길 속 연꽃처럼 피어날 것”



▲ 법정스님(1932~2010)

● 다비(荼毘)

일체의 장엄없이 가사로만 덮인 법정 스님의 법구는 3월 12일 서울 길상사를 떠나 오후 5시경 순천 송광사에 도착 문수전에 모셔졌다.

스님의 법체는 13일 오전 10시 108번의 명종이 울리는 가운데, 영결식 없이 대웅전 앞 삼배만을 올리고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송광사 상가입구 산쪽 약 1km 지점에 있는 다비장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됐다.

참나무단 위에 법구를 모신 후 오전 11시 40분경 문도대표 길상사 덕현 스님 등 9명 스님의 거화로 다비가 시작됐다. 다비가 진행되는 동안 문종 스님들의 즉석 영결사와 추도사가 올려졌다. 덕현 스님은 “스님은 가셨지만 불길 속에서 스님의 남기신 참뜻은 연꽃처럼 피어날 것으로 믿는다”며 대중들과 함께 “화중생연(火中生蓮)”을 외쳤다.

다비식에는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해 법흥 스님, 혜정 스님, 고산 스님, 설정 스님, 현호 스

님,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해 법정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 습골(拾骨)

3월 14일 오전 10시 다비장에서 습골 의식이 봉행됐다. 법정 스님의 유골은 송광사, 지장전에 마련된 분향소에 안치되었고, 일부는 송광사 불일암에 나머지는 서울 길상사로 옮겨졌다. 유골은 길상사에서 채골한 후, 4월 28일 49재 이후 불일암과 강원도 토굴에서 산골될 예정이다.

● 유언(遺言)

〈상좌를 보아라〉 인연이 있어 신뢰와 믿음으로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괴팍한 나의 성품으로 남긴 상처들은 마지막 여행길에 모두 거두어가려 하니 무심한 강물에 흘려보내주면 고맙겠다. 모두들 스스로 깨닫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거들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 그지없다.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 속에 있는 스승을 따라

청정수행에 매진하여 자신 안에 있는 불성을 드러내기 바란다.... 덕조는 만상좌로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결제 중에는 제방선원에서, 해제 중에는 불일암에서 10년간 오로지 수행에만 매진한 후 사제들로부터 만사형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사제들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덕진은 머리맡에 남아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에게 전하여 주면 고맙겠다....내가 떠나는 경우 내 이름으로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을 행하지 말고, 사리를 찾으려고 하지도 말며,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고,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지체없이 평소의 승복을 입은 상태로 다비하여 주기 바란다.

● 행장(行狀)

법정 스님은 1932년 2월 15일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서 박근배(朴根培) 선생과 김인엽(金仁葉) 여사 사이에서 출생했다. 우수영 초등학교, 목포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상과대학 3학년 재학 중 한국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출가를 결심한다. 1954년 2월

이를 계기로 타고난 문재를 발휘, 저작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지리산 쌍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修禪安居)를 한다.

4.19와 5.16을 지나온 스님은 1967년 동국역경원 개설에 참여하고, 서울 봉은사 다래헌에서 운허 스님 등과 함께 동국역경원 경전 번역 작업에 진력한다. 1972년에는 첫 저서 〈영혼의 모음〉을 발간하고 1973년 불교신문 논설위원과 주필을 역임했다. 이 시절 함석헌, 장준하, 김동길 등과 함께 민주주의 호국민협의회를 결성, 유신철폐 개헌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참여한다.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와중에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당이 지목되고 1975년 8명의 젊은이들이 사형당한다. 이 사건을 접하고 “명색 출가 수행자로서 마음에 적개심과 증오심을 품는다는 일에 자책을 느낀다”며 송광사 불일암으로 들어가 홀로 수행에 들어간다.

법정 스님은 이후 오랜 독살이 수행



▲ 가사로만 덮인 법구가 다비장으로 이운되고 있다.

장경각 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내려오며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지금 내려 온 곳에 있다고 하자 할머니는 “빨래판같이 생긴 거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스님은 아무리 훌륭한 팔만대장경 말씀이라도 일반인들이 다가갈 수 없는 난해한 글자로 남아 있다

34년간 180쇄를 찍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17년의 불일암 수행을 접고, 1992년 산문집 〈버리고 떠나기〉를 내고는 강원도 진부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최근까지 고독하고 청정한 수행을 해왔다.

법정 스님은 오두막에서 지내면서도 대중과의 소통은 계속했다. 1994년 순수 시민운동 단체 ‘맑고 향기롭게’를 결성하고 양재동 구룡사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1995년 고급요정이던 성북동 대원각을 시인 백석의 연인 김영한 보살로부터 시주받아 1997년 길상사를 창건한 후 회주로 있으며 격월로 정기법문을 했다.

2003년에는 회주를 사임하고 봄 가을 대중 법문을 한다. 2007년 7월 폐암 진단을 받고 도미, 치료후 회복되었다가 2009년 4월 재발, 겨울부터 제주 서귀포에서 요양을 해왔다.

법정 스님은 뛰어난 필력과 깊은 감성으로 자신의 수행체험과 일상을 쉽고 간결한 문체로 선보이며 일반대중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저서로 길상사 소식지 게재를 모음집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롯해 법문집 〈일기일회〉,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들〉, 〈홀로 사는 즐거움〉, 〈산에는 꽃이 피네〉, 〈오두막 편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물소리 바람소리〉, 〈산방한담〉, 〈텅빈충만〉, 〈서 있는 사람들〉,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맑고 향기롭게〉, 〈숫타니파타〉, 〈진리의 말씀〉, 〈인연이야기〉 등이 있다.

-윤우재 기자

법구, 일체 장엄 없이 가사로만 덮여
고독하고 청정한 수행, 〈무소유〉 등 명저 남겨

을 두고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전통과 타성에 젖어 지극히 관념적이고 형식적이며 맹목적인 수도 생활에 실패 뒤흔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스님이 해인사에 살 당시의 일화다.

면 한날 빨래판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이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말과 글로 전할 방법을 고민했다.

이런 원력은 1976년 4월 산문집 〈무소유〉 발간으로 승화된다. ‘무소유’는



▲ 3월 13일 송광사 연화대에서 엄수된 다비식



햇보리자 총지종108염주

천은사 보리자(7mm)를 사용하여 2009년도 햇 보리수 108염주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보리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천은사 보리자이고, 모주는 패다라에 육합상을 조각했으며, 간주로는 천연 백수정 10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패다라란 인도에서 종이 대신 글자를 새기는 데 쓰인 나뭇잎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나뭇잎에 새겨두었으므로 바로 경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로 모주를 만들었기에 부처님 말씀을 늘 수지한 경전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패다라 모주 108염주로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패다라(貝多羅) : 經은 梵語로 수다라(sutra)라고 하는데 바로 번역하면 선. 관(線. 貫)이 된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말씀을 패다라 나무 잎에 써서 끈으로 엮었기 때문이다....



● 해외불교탐방

독일불교 순례기

유럽 8곳 불교센터 보유한 명문 랍텐재단

보

정

(법정원 연구원/박사)

유럽의 랍텐 재단은 현재 유럽 각지에 8개의 불교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명문 불교 재단이다. 우리 일행은 8개 센터 가운데 재단 본부가 있는 스위스의 센터를 포함해서 4개의 센터를 방문하였다.

우리가 랍텐 센터들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그윈트 박사 내외(Dr. Franz Gshwind, Mrs. Johanna Gschwind)의 초청에 응한 결과이다. 그윈트 박사 내외는 총지중에서 매년 주관하고 있는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World Lay Buddhist Forum)에 2007년 대회부터 3회를 연이어 참가한 분들이다. 대회에는 세계 각지에서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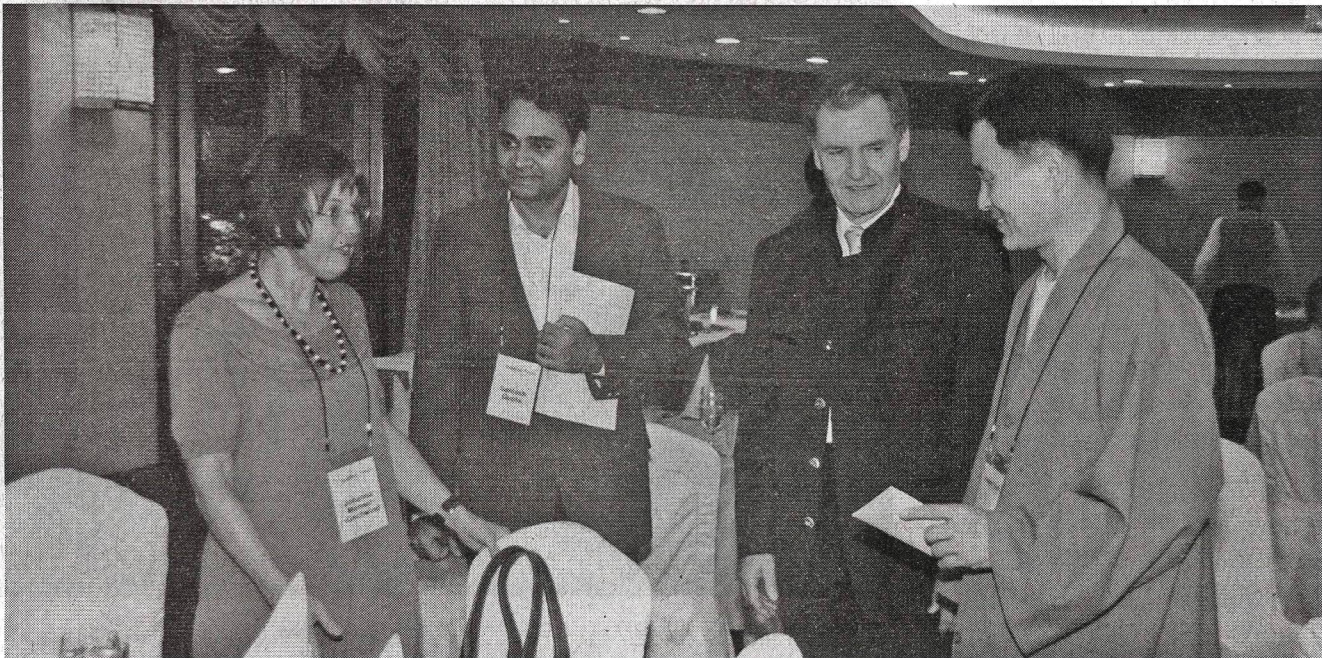
그윈트 박사는 독일의 뮌헨 대학 공학부에서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다가 몇 년 전 은퇴한 후 지금은 부인과 함께 불교 공부와 불교 센터 운영에 몰두하고 있다. 박사는 70년대 초반부터 불교 공부를 하였으니 30년 넘게 불교 공부를 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육식을 하지 않는 등 계행에도 철저한 분이다. 이론과 실천이 완비된 훌륭한 수행자인 것이다. 그의 부인 역시 박사와 함께 공부와 수행에 열심이었다.

그윈트 박사 내외는 벌써부터 우리에게 여러 차례 초청 편지를 보내왔으나, 그 동안 내 개인적 일정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뜻만

표했었다. 유럽의 불교를 둘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종단 내외의 사정 때문에 선뜻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예 유럽에서의 일정까지 잡아 놓고 계속 초청의사를 표시하시기에 더 이상 사양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확답을 미룬 채 그러저대로 노력해 보겠다고만 답변하다가 박사 내외가 잡아 놓은 일정 일을 약 한 달 보름을 남겨 두고 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박사 내외는 우리가 가겠다는 답변을 받고서는 매우 기뻐하면서, 우리들의 방문을 기약에 남는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뜻을 이메일로 전해 왔다. 단순한 예의 표시가 아니라 진심어린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진심어린 태도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아는지라 한 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회에



▲ 그윈트 박사(오른쪽에서 두번째) 내외(맨 왼쪽이 부인).

참석할 때마다 잔뜩 선물꾸러미를 가져와서 종단은 물론이고 화령님이나 나한테도 주었었다. 수차례의 초청 편지에도 그들의 마음을 알 만 한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선물은 무엇으로 해 가야 하나, 나중에 답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까지 하였다.

이런 저런 사정들로 출발 일을 불과 20여일 남겨 두고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여행 준비를 하였다. 경비가 부족한데다가, 성수기인데다가 뒤늦게 예매를 하다 보니 이들 부부가 있는 뮌헨으로 가는 표를 살 수가 없었다. 비행기 편이 많은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기차를 타고 뮌헨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로 바로 가는 비행기 샀을 너무 비싸서 북경을 경유해서 가는 표를 구매하였다. 시작부터 만만찮은 여행이었다.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북경으로 갔다. 북경 공항은 신종 플루 검역으로 부산을 떨고 있었다. 싸스로 인해 많은 목숨을 잃은 경험이 있는 중국은 신종 플루 확산에 매우 예민해 있었다. 그냥 공항에만 머물다가 떠나는 데도 불구하고, 몸에 이상 징후가 없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마스크 쓴 검사관이 있는 검사대를 통과하고, 또 세관도 통과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다. 뮌헨으로 가려면 아직도 멀기만 한데 벌써부터 진을 빼는 셈이었

다. 이미 피곤한 몸으로 우리는 북경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여섯 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다.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북경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식사 때 받았다가 남겨 둔 찹쌀떡으로 허기를 채우고는, 밤이 늦어 행한 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대기실 의자에 웅크리고서 두어 시간 눈을 붙인 다음 날 새벽 2시 반에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다시 10시간의 비행 끝에 다음날 새벽 5시 30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닿았다. 시차 관계로 이들 밤을 공항과 비행기 안에서 보낸 셈이었다. 20시간이 넘는 시간과 이들 밤이나 경과하는 힘든 여정이었지만, 공항에 내렸을 때는 그다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미국에 비해 훨씬 간단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마중 나온 사람들이 기다리는 출입구를 향했다. 입국 수속은 간단했으나 출입구를 찾아 가는 길은 간단하지 않았다. 공항 역사가 오래되다보니 옛 건물과 새 건물을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항내 동선이 매우 복잡하였다. 나가는 방향을 확인한 다음 화장실에 들러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였다. 밤새워 비행기를 타고 나면 물결이 말이 아니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기 마련이었다. 짐을 찾고 출입구로 나갔는데,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

다. 어찌 된 영문인가 두리번거리다 보니 또 다른 출입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위 사람에게 물으니 40미터쯤 왼편에 또 다른 출입구가 있다고 하였다. 그쪽 출입구 쪽으로 스무 걸음 정도 옮기니 비교적 덩치가 큰 점퍼 차림의 남자가 우리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자신을 홀가(Holga)라고 소개하였다. 반가웠지만 간단한 인사를 하고, 바로 그를 따라 철도역을 향했다. 매우 봄비는 장소라 길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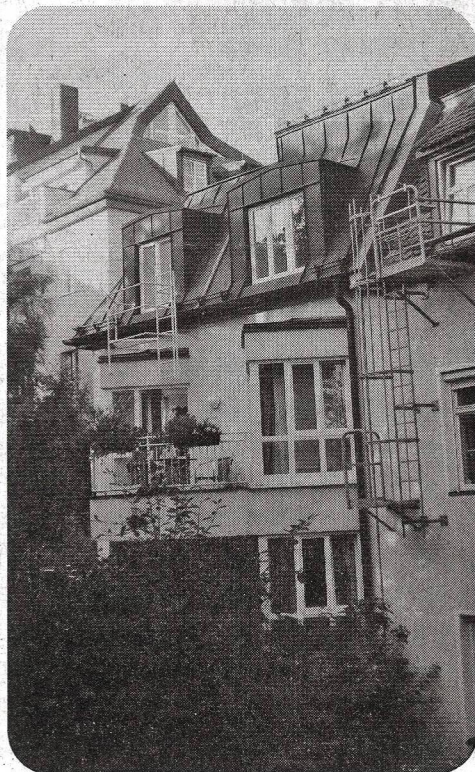
철도역은 공항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역시 찾아가는 길은 상당히 복잡하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바로 플랫폼이었다. 기차표는 서울에서 사서 갔으므로 따로 매표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또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데는 개찰구도 없었다. 플랫폼에 도착해서 홀가 씨가 플랫폼 안내판에 붙어 있는 다음 열차 시각을 확인하였다. 약 30분이 남아 있었다. 비로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만치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홀가 씨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의사로 오랜 동안 바

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근무하다가 2년 전에 은퇴하였다고 하였다. 공항에서 환자 수송과 관련된 일이나, 응급환자를 돌보는 일 등을 하였던 것이다. 은퇴 후에는 그윈트 박사처럼 역시 불교 공부와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였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매주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불교와 티벳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윈트 박사와의 약 10년 전에 불가리아에 불교 센터를 지을 당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럽인들이 어떤 식으로 불교 공부를 하고 또 불교 센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 단편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홀가 씨는 스리랑카와 인도에 환자 수송 겸 순례 여행을 한 적은 있으나 한국에는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매년 10월 개최되는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때 한국에 오라고 하니 고마워하였다. 대화를 통해 홀가 씨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 알만 할 쯤 되니 기차가 플랫폼에 곧 도착할 것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미지의 우리들을 위해서 공항까지 나온 그를 기억해 두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서둘러 기념촬영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기차에 올랐다.

(다음 호에 계속)



▲ 고평스루 재단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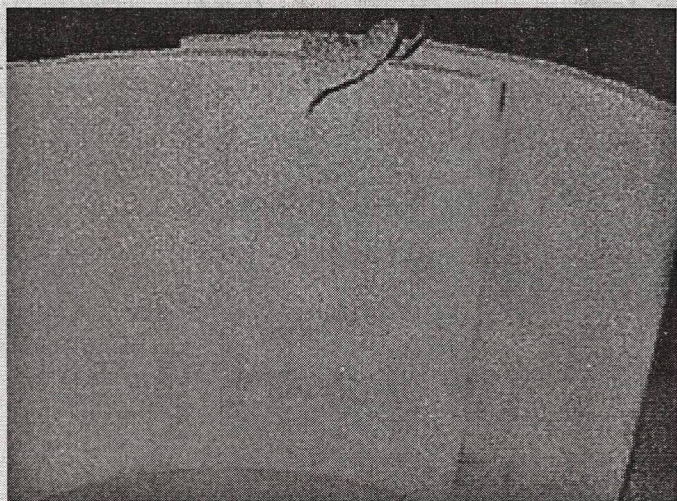
▲ 달라이 라마 표지판 앞의 필자.

제가 지도자들이 참가하였는데, 이 부부는 특히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총지중과 한국에 대해서 매우 많은 호감을 가졌다. 이들 부부는 대회 기간 중 항상 새벽 불공에 제일 먼저 참석하는 등 수행 체험 프로그램에 가장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에서 한국을 3년 연속 방문한 자제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열성적인가를 알 수 있다. 더욱이 독일인인 그들이 그들은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기도

웰빙시대 우리집 건강지킴이 신비의 황토손

선조들의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신비의 흙이 바로 황토입니다.

땅의 약 10%를 덮고 있는 황토는 다량의 탄산칼슘을 가지고 있다. 이 성분은 황토를 잘 부서지지 않게 하는 점력을 가지며 이외에도 실리카 알루미나,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칼라 등의 구성성분을 갖는데 이러한 성분비와 다양한 효소들로 조성된 황토는 동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원적외선을 다량 방출하므로 살아 있는 생명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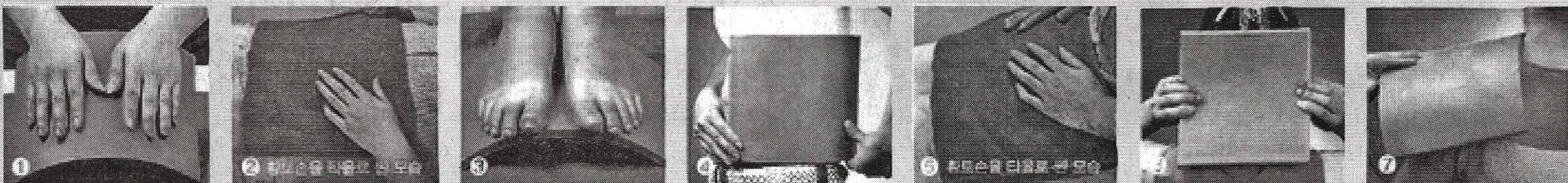


▶ 황토이야기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돕거나 세포생성을 촉진시킨다. 특히 황토는 중금속을 분리시키며 습도를 조절하고 전자파를 차단하며 항균, 방충, 생리 활성, 제독력 등의 효능이 있어 노화방지나 건강에 효과가 있다. 황토를 축조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하던 우리 옛어른들에게 유방암, 자궁암 등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부인병을 예방하는 효능 때문이었으며, 이는 옛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

중국과 우리나라의 한방 의학서인 본초강목과 향약집성방에는 복용간(황토)에 대해서 중 요시 하고 있다. 복용간은 아궁이 속의 흙을 말하며 이는 부인의 어지러움이나 토혈, 중풍등의 치료제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산해경에도 황토는 대체로 질병치료에 효험을 보는 것으로 묘사 되어 있다.



① 손의 혈액순환을 위해 황토손위에 올려놓은 모습 ② 번비가 심하신 분은 등근면을 배 안쪽으로 해서 대위주는 모습 ③ 무릎, 발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모습 의자에 걸터 앉거나 가변케 올려 놓는다. ④ 옆구리 결림 등에 등근면을 사용하는 모습 ⑤ 무릎 등의 관절 부위에 사용한 모습 ⑥ 머리가 무겁거나 뒷 목줄기가 당길 때 사용한 모습 ⑦ 어깨가 결리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였을 때 사용모습 ⑧ 허리가 결리거나 당길때 사용모습(엎치통 등)

문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612

김미성 보살

☎ 011-514-1094, 053)765-9588

대구 개천사 : 대구 중구 봉산동 230-12

☎ 053-425-7910

사찰 탐방

호국신앙의 발원지 밀교도량 사천왕사 -명랑 법사, 신인비법(神印秘法)으로 당군 격퇴

월명사가 지은 현전 최고의 향가 제망매가의 산실이기도 한 경주 사천왕사는 황룡사와 함께 밀교의례에 의한 불력(佛力)으로 나라를 지키려는 염원으로 창건된 호국사찰이다.

지금은 절 터만 남아 있지만 불교가 융성하던 때 국가적 차원에서 건립한 대가람이었다.

신라의 승려 명랑(明郎)은 어머니가 자장율사의 누이동생이었다. 632년(선덕여왕1) 구법차 당나라에 갔다가 밀법을 배워서 4년 후에 귀국했다. 명랑이 당에 갔을 때는 밀교가 널리 퍼져서 후한(後漢)과 진(晉)을 거쳐 북위(北魏)와 양(梁)대를 지나면서 많은 밀교 경전이 역출되어 당

광사(金光寺)라 하고 밀교 포교에 힘썼다고 한다. 밀교의 문두루비법으로 도량을 열어 국난을 물리쳤기에 후에 신인종(神印宗)의 조사로 불리게 된다.

신라의 신인비법(神印秘法)과 고려의 신인종(神印宗)의 “신인(神印)”이란 뜻은 법어 ‘무드라’를 음역해서 문두루(文豆婁)라고 썼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밀교의 결인(結印, 印契)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두루를 신인(神印)이라 한다. 유상유가(有相瑜伽) 입장에서 신·구·의 삼밀 중에 신밀(身密)에 해당된다. 밀교의 관정경(灌頂經)에 의거한 밀교의 호국의례(護國儀軌)로써 신인비법을 처음 설행한 사람이 명랑법사였다.

당나라는 평양성을 함락시켜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나, 본국으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백제에 머물러 기회



▲ 경주시 배반동 사천왕사지 · 뒤산이 선덕여왕릉이 있는 낭산(狼山)

림(神遊林)에 채백(彩帛:채색비단)으로 입시 사찰을 짓고, 풀로 오방신상(五方神像)을 만들어 동·서·남·북·중 앙에 안치하고, 밀교에 밝은 유가종(瑜伽宗)의 명승 대덕 12명을 뽑아 신인비법을 행했다. 당의 군대는 신라와 교전도 있기 전에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군선이 모두 침몰하였다고 한다.

이듬해에 당나라 장수 조현(趙憲)이 5만의 군사로 침략했을 때도 명랑은 신인비법으로 당군(唐軍)을 물리쳤다고 한다. 문무왕 19년(679년) 명랑은 밀교의 신인비법으로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던 경주 신유림(神遊林)에 절을 신축하여 사천왕사(四天王寺)라고 했다. 후에 신라 조정에서는 사천왕사 성전(四天王寺成典)이란 관청을 두어 직급이 높은 신하들로 사천왕사를 관리하게 하였다.

명랑에 의해 신라에 전파된 밀교의 문두루비법은 밀교 경전인 관정복마봉인신주경(灌頂伏魔封印神呪經)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경에 설한대로 불단(佛壇: 만다라)을 설치하고 다라니를 독송하면 국난을 물리치고 나라를 수호할 수 있다고 한다. 명랑 이후에도 문두루도량은 계속되어 고려 문종 28년(1074년)에도 경주 사천왕사에서 27일동안 문두루도량을 베풀었다고 한다.

풀었다고 한다.

명랑이 당나라 대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세운 것은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진호국가경전(鎮護國家經典)으로 존송되는 <금광명경>의 “사천왕품”에 의한 것이다.

이후 고려 태조 왕건은 명랑의 후예인 광학(廣學)과 대연(大緣)이라는 유가승의 작법으로 해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개성에 현성사(現聖寺)를 창건하여 신인종(神印宗)의 근본도량이

되게 하였다. 고려 왕실은 호국을 염원하는 밀교의례를 많이 개설하였는데, 몽골의 침략이 있었던 고종 4년(1217년) 4월에도 몽골군의 퇴치를 위해 현성사에서 문두루도량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고려 조정에서 국가적인 문두루도량을 개설하였던 사찰은 특히 국경이 대륙과 접한 서경(평양)에 많이 있었고 흥복사(興福寺), 영명사(永明寺), 금강사(金剛寺), 장경사(長慶寺) 등이라고 한다.



▲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금당터.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



경주 낭산(狼山) 기슭에 있는 신라의 절터로 신문왕릉 옆 선덕여왕릉 아래에 있다.

이곳은 원래 신유림이라 하여 신라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곳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선덕여왕이 죽으면서 도리천에 묻어줄 것을 유언했는데, 그곳이 낭산 남쪽이라 하였다. 여왕이 죽은 지 30년만에 왕릉아래 사천왕사를 짓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여왕의 예언이 맞았음을 알게 되었다. 불교에서는 수미산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고 그 중턱은 사천왕이 지키며 꼭대기에는 부처의 나라인 도리천이 있어 불국토가 시작되는 곳이라 믿었다. 이 설화를 통해 낭산을 수미산으로 생각했던 신라인들의 불국토사상을 엿볼 수 있다.

절터에는 머리부분이 없어진 귀부 2기와 비신, 그리고 당간지주 1기가 남아있다. 특히, 절 동쪽에 남아있는 귀부는 사실적인 표현수법과 등에 새겨진 아름다운 조각으로 신라시대의 뛰어난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가장 먼저 지은 사천왕사는 전형적인 쌍탑식 기암 배치로 신라 호국불교의 성격과 신라인들의 불교관·우주관을 잘 보여주는 절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선덕여왕이 미리 알고 있던 3가지 일 중 하나로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에 묻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디인가를 묻자 이곳을 지목하였는데 여왕이 죽은 뒤 30년 뒤에 여왕의 능 아래에 사천왕사가 지어짐으로써 여왕의 예지능력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 설화는 신라인들이 낭산을 수미산(須彌山)처럼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절에는 경덕왕대에 도술가, 산화가 등의 향가를 짓고 피리를 잘 불어달라가기를 멈출 정도였다고 전하는 월명대사가 있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 모집시기 : 수 시
- ◆ 연습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 연습장소 : 총지사
- ◆ 연락처 : 이연수 단장

02)552-1080~3(대)

